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2008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전공

이미자(李美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 희 자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2008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deconstruction
make-up



HANSUNG
UNIVERSITY

200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전공

이미자(李美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 희 자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2008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deconstruction
make-up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전공

이미자(李美子)

이미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을 메이크업에 접목시켜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특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특성과 종류를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개최되었던 컬렉션에서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성인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의 4가지와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인 우연적 의미, 퇴폐적 의미, 유희적 의미, 양성적 의미, 민족적 의미 등을 접목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연적 의미의 메이크업은 드리핑(Dripping)메이크업, 데칼코마니(Decalcomanie)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퇴폐적 의미는 병적인 분위기의 색상이나 혐오스런 문양의 타투(Tattoo)메이크업, 성을 자극시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데카당스(Decadance) 메이크업, 곤충의 더듬이나 동물의 깃털 등을 사용하여 퇴폐적이고 혐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노트스테(Notester) 메이크업, 혐악한 분위기로 부자연스럽고 애매모호한 그로테스크(Grotesque)메이크업 등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유희적 의미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선과 면을 응용한 그래픽(Graphic) 메이크업, 이질적 소재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한 콜라주(Collage) 메이크업, 도형적인 요소를 조합한 타투(Tattoo)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양성적 의미는 성(Gender)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되고 차별화된 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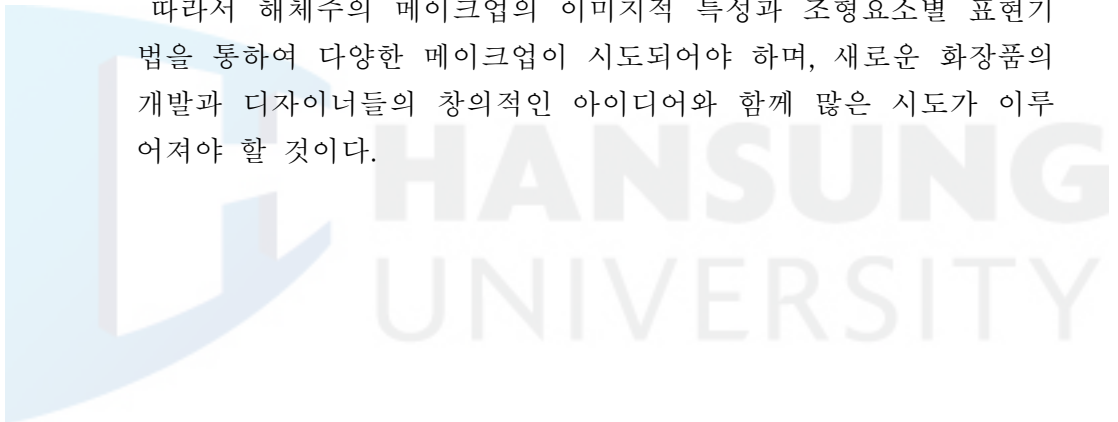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민족적 의미는 메이크업의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화이트 컬러를 이용하여 피부를 하얗게 표현한 화이트(White) 메이크업, 과거의 코울을 사용하여 형체와 색상을 변형시킨 코울(Kohl) 메이크업,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과 블랙만 사용한 형태인 펑크(Punk)메이크업 그리고 비주류문화의 전통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획일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를 표현한

레이스리스(Raceless)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조형요소별 표현기법은 전반적으로 아트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강하며, 특히 선은 얼굴전체에 자유롭게 표현되어 기하학적 모양의 선들이 많이 보였고, 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팔 심지어 손바닥 에도 넓은 면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의 구성방식의 틀을 벗어났다.

이처럼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일반 메이크업에 비해 과격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력을 추구하고 한 가지 특성만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지나 기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응용되고 변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측면과 해체주의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과 조형요소별 표현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메이크업이 시도되어야 하며, 새로운 화장품의 개발과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차 례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메이크업의 일반적 고찰	3
1. 메이크업의 개요	3
2. 메이크업의 역사	4
III. 해체주의	14
1. 해체주의 개념	14
2.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	15
1) 차연	17
2) 상호텍스트성	17
3) 불확정성	19
4) 탈현상	19
IV.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표현기법	21
1.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개념	21
1) 우연적 의미	22
(1) 드리핑 메이크업	23
(2) 데칼코마니 메이크업	24
2) 퇴폐적 의미	26
(1) 데카당스 메이크업	26
(2) 노테스테 메이크업	28
(3)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30
3) 유희적 의미	32
(1) 그래픽 메이크업	32
(2) 콜라주 메이크업	34
(3) 타투 메이크업	36

4)양성적 의미 -----	38
(1)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	39
5)민족적 의미 -----	41
(1)화이트 메이크업 -----	42
(2)코올 메이크업 -----	44
(3)핑크 메이크업 -----	46
(4)레이스리스 메이크업 -----	48
2.해체주의 형태와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기법 -----	51
1)점 형태 -----	52
2)선 형태 -----	52
3)면 형태-----	53
4)구상적 형태 -----	53
5)추상적 형태 -----	53
6)기하학적 형태 -----	54
7)무 형태 -----	54
V. 메이크업을 활용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분석 -----	56
1. 불확정성 형식의 해체 -----	56
2. 탈 중심성 -----	57
3. 상호텍스트성-혼성 모방 -----	59
VI.결론 및 제언 -----	60
참고문헌 -----	63
ABSTRACT -----	67

-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

<표 IV-1> 해체주의 표현기법에 따른 메이크업의 특징 -----	50
<표 IV- 2> 해체주의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 특성-----	55
<그림 IV-1 > Mise en scene 04 SS Paris Milano -----	23
<그림 IV-2 > VIVIENNE WESTWOOD Collection vol09 2005 SS -----	23
<그림 IV-3 > Guy Laroche FW collection Paris Milano Make up ---	24
<그림 IV-4 > 04 SS Paris Milano 03-04 -----	24
<그림 IV-5> Boudicca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	25
<그림 IV-6>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PM -----	25
<그림 IV-7> Boudicca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25
<그림 IV-8>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25
<그림 IV-9> John Galliano 07-08 FW Paris Milano New york -----	27
<그림 IV-10> John Galliano 07-08FW Paris Milano New york -----	28
<그림 IV-11> Christion Dior Collection vol09 2005 SS PM Make-up -----	28
<그림 IV-12> Mise en scene 04 SS Paris Milano -----	28
<그림 IV-13> 07-08 FW Paris Milano New york -----	29

<그림 IV-14> Keita maruyama 03-04 FW Paris Milano -----	29
<그림 IV-15>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	30
<그림 IV-16> Viktor_Rolf Fem collections vol08 2004-05 FW ----	30
<그림 IV-17> John Galliano Collection vol00 2003 SS -----	31
<그림 IV-18> Christian Dior 03-04 Milano Paris London New York -----	31
<그림 IV-19> Fatima Lopes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31
<그림 IV-20>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	33
<그림 IV-21> Collection vol13 2007 SS PMN make-up Givenchy ----	33
<그림 IV-22> Y-3 04 SS Paris Milano -----	34
<그림 IV-23> Christian Dior 03-04 FW Fem Paris London -----	34
<그림 IV-24> Christian Dior 03-04 Milano Paris London New York -----	35
<그림 IV-25>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35
<그림 IV-26> John Galliano 03 SS collection London NewYork Milano Paris-----	36
<그림 IV-27> Christian Dior 03 SS collection London NewYork Milano Paris -----=-----	36
<그림 IV-28> 05-06 FW 34page PM -----	38

<그림 IV-29> Lanvin 04 SS Paris Milano -----	38
<그림 IV-30> John Galliano 04-05FW -----	41
<그림 IV-31> Fem Beauty Milan NewYork 2007 fw RTW -----	41
<그림 IV-32> JC de Castelbajac FW Make up -----	41
<그림 IV-33> Fem collections vol11 04-05 03-04 FW -----	41
<그림 IV-34>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	44
<그림 IV-35>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	44
<그림 IV-36>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Makeup style-Eye Christian Dior -----	46
<그림 IV-37>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Makeup trend in London House of jazz -----	46
<그림 IV-38>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	47
<그림 IV-39> Christian Dior Collection vol109 2005 SS -----	47
<그림 IV-40> Christian Dior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	48
<그림 IV-41>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	48
<그림 IV-42>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	49
<그림 IV-43> von Furstenberg Fem collections vol109 2004 SS ---	49

I. 서론

1. 연구목적

21세기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자아 정체성의 상실을 겪으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일반적으로 널리 경험되고 있는 패션과 메이크업 또한 개성을 중시하며 좀 더 과감하고 전위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메이크업에도 아방가르드적인 표현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로 인해 복잡해진 구조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아정체감을 위해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더불어 인간성의 회복 및 자연으로의 회귀보다 더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은 이전의 형식적인 스타일보다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업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해 왔다¹⁾.

해체주의란 서양철학의 기본인 형이상학에 반기를 들어 '차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탈중심화' 등의 개념으로 20세기 후반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복식과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 등 미 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체주의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패션이 사회 · 문화 · 패션경향 · 미의식 · 사회 적인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있음을 입증하였듯이²⁾ 시대적인 미의식의 변화가 그 시대의 복식과 메이크업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점점 메이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해체주의 경향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어 메이크업에도 그 특성이 표현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1)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p.487.

2) 이화순(2003), 「한국여성의 Make-Up조형성에 관한 연구 -얼굴형에 적합한 화장색조와 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이론을 메이크업에 접목시켜 시대적인 미의식의 변화가 그 시대의 복식과 메이크업 변화에 영향을 끼친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메이크업의 종류를 발췌,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세계의 4대 컬렉션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가 밀라노, 런던, 뉴욕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이 실험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국외번역 문헌과 선행 연구된 학술연구지를 통하여 조사, 선별된 사진자료 분석과 웹 사이트, 여러 패션 연구소에서 계절마다 세계의 패션을 정리, 발표한 다양한 자료와 각종 패션 정보지 등을 참고로 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메이크업의 개요와 역사를, 제3장에서는 해체주의의 개념과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개념과 형태 및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기법을, 제5장에서는 메이크업을 활용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II.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메이크업의 개요

영어의 메이크업 (make-up)은 페인팅 (painting), 토일렛(toilet),드레싱 (dressing)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큐(maquillage)등으로 표현된다.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EFac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의 의미로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 맥스 팩터(Max Factor)에 의해 대중화되었다³⁾. 메이크업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s)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스메티코스는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 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 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질서있는 체계, 조화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메이크업은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질서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어 온 것으로 인간의 기본욕구인 미적본능과 자기표현의 수단, 사회적, 종교적 상징으로 행해져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서 화장품 재료의 개발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일반인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는 그 문화권내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 선별, 선호, 선택된 미의 개념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20세기 초반의 메이크업은 주로 사치에서 규정한 이상적인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감성과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등장과 사치, 문화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메이크업은 더 이상 획일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다양하게 등장하는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표현의 무제한성을 허용하고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방법 중에서 현대 미술 사조를 반영한 메이크업은 재료와 표현방법의 한계를 무너뜨리며 메이크업을 창조적 예술표현의 한 장르로 나타내고 있다.

3) 한명숙(2001). 『마꾸아큐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 11

4) 이명희(2004). 「 포스트 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

2. 메이크업의 역사

메이크업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으로서 또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사치적, 종교적 상징으로 응용되어 왔다. 인류의 변천에 따라 고대의 메이크업과 현대의 메이크업은 의미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 지역, 신분, 직업 등의 사회적 의미가 메이크업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메이크업 표현에 따라 개성, 기호, 교양을 알 수 있다⁵⁾.

20세기 이전까지의 메이크업은 화장품의 원료구입, 제조방법 등의 한계로 크게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나 20세기 이후 현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대중이 출현하면서 그들 각자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화의 진행으로 화장품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인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⁶⁾. 또한 영화나 패션잡지 등 대중매체의 증가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메이크업의 패션화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⁷⁾. 따라서 메이크업이 패션성을 띄며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전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러한 20세기 이후의 메이크업은 각 시대와 문화권의 역량에 따른 미의 가치 성향에 따라 195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등장과 함께 사치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점차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개념이 희미해져서 화장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 구성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는 의식의 표출수단으로 확대 되었으며⁸⁾ 여러 가지 새롭고 전위적인 표현 형태와 패턴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이크업 경향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해 보았다

1) 1900 ~ 1910년대

과학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통 ·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며 19세기의 영향으로 자연스

5) 이명희(2004), 앞의 논문, p. 32.

6) 장미숙(1998), 「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7) 최은지(1999), 「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8) 조은별(1996). 「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29 앞의 논문, p.28 - 29

러운 화장이 지속되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일반여성의 경우 색조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피부 손질용 화장품 사용이 대부분 이었다. 희고 투명한 피부에 대한 선호로 이를 위한 크림이나 로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파우더만 바른 피부에 눈썹을 다듬은 정도가 화장의 전부였다.

그러나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공연으로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 동양적이고 신비스럽고 강한 색조가 인기를 끌게 되자 화장의 색조도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⁹⁾. 특히 디자이너 폴 뵘와레트(Faul Poilet)에 의해 전개된 오리엔탈 분위기의 의상과 이에 어울리는 화장형태가 등장하였다¹⁰⁾. 희고 투명한 피부에 대한 선호로 크림이나 로션을 많이 사용하였고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 눈을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사이에 황색분이나 강렬한 색을 바르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화장이 유행하였으며 핑크와 붉은 입술화장이 등장했다. 밝은 색이 인기를 끌게 되어 핑크와 붉은 입술화장이 등장했으며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썹을 검게 칠하는 새로운 기법의 눈화장이 터어키,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의 영향으로 유행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화장이 등장한 시기는 화장품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차 대전 이후 즉 192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후의 서구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1920년대를 '분별없는 20년대' 혹은 '광란의 20년대', '들뜬 20년대'로 특징지을 만큼 이 시대에는 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강조와 과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장도 이러한 사치적 분위기와 변화를 뚜렷이 반영하여 전개되었다. 전쟁동안 약간의 분칠과 속눈썹을 강조하던 정도에서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화장한 여성들의 얼굴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에 영화가 본격적인 대중 오락문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시대 메이크업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눈썹은 뽑아서 가늘고 초생달과 같은 눈썹을 만들어 그 위에 다시 눈썹 연필로 그렸고, 아이섀도우는 초록

9) 한명숙(2001). 앞의 책, p. 210

10)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29

색, 갈색, 검정색 등으로 강하게 표현하였고, 인조 눈썹을 많이 사용했다. 눈에는 코울로 아이라이너를 그렸으며 볼에 둥그렇게 붉은 볼 화장을 하고, 입술화장은 또렷하고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그렸다. 눈가에 검정색 라인을 그렸으며 눈꺼풀에도 음영을 주고 눈썹을 가늘게 다듬거나 정교하게 그렸다. 또한 입술을 아주 선명하고 반짝이는 붉은 색으로 진하게 강조하였는데 이를 큐피트의 활(cupid's bow), 장미봉 오리(rosebud), 벌에 쏘인 듯한 뽀로통한 입(divinebee-strung lips)등으로 칭하였다. 이러한 뚜렷한 화장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플래퍼(flapper), 가르손느(a la garconne)라는 명칭을 지닌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1차대전 동안 남성을 대신하여 사회로 진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여성 참정권의 보장과 남녀평등 사상을 주장하며 1920년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흥분과 자유, 생명력을 대변하였다.

또한 1920년대에는 대중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영화의 발달로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헐리웃 스타들의 화장형태와 의상, 심지어는 행동이나 태도까지도 추종되고 모방되었다. 클라라 보우(Clara Bow)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스타로 창백한 얼굴, 짧은 단발머리, 크고 검게 화장한 눈, 그리고 곡선 진 빨간 입술로 유명하다. 이처럼 1920년대에는 전후의 젊고 활기찬 시대 분위기와 함께 새로이 등장한 여성의 이상적 유행을 표현하는데 있어 화장이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의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그린 얇은 눈썹, 또렷하고 선명하게 강조된 작은 입술화장은 우상시 되는 영화배우의 등장에 의해 더욱 확대되어 20년대 여성들의 이상적 미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화장 형태가 되었다¹¹⁾.

3) 1930년대

1929년에 닥친 경제공황은 직업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려는 기운이 일어났고 이로써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태도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¹²⁾. 따라서 20년대와 같은 젊음과 열정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행했던 말괄량이 소녀의 모습 대신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이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의 화장은 1920년대와는 다르게 더 진하고 숙련된 기술로

11)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 30-34.

12) 박숙현(2004). 『패션디자인론』. 예학사, p.6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얼굴 전체에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턱을 좁게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흰색 하이라이트와 검정색이나 청색 아이 섀도우를 펴 발랐으며 인조 속눈썹과 마스크라를 더하여 강조했다. 입술은 크고 선명하게 반짝이는 빨간 색의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로 칠했다. 당시의 경제적 침체라는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사치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영화는 아주 중요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고 사치적인 인식과 가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1930년대의 여성들은 누구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기술을 배워 영화 스타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모방하고 추종하였다. 1930년대에 변화된 스타들의 모습은 각이진 어깨와 얼굴, 크게 강조된 눈과 입, 어깨 길이까지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20년대의 모호했던 표정에서 윤곽이 뚜렷한 표정과 외모를 지닌 여성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켰다. 특히,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신비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이며 냉소적인 모습은 30년대를 대표했던 스타로서 새로운 미와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다른 여배우들과 일반 여성들의 이상상이 되었던 가늘고 매우 곡선적으로 그린 아치형의 눈썹과 실제 보다 두껍게 강조한 멜론 립스(melon lips)형태의 입술화장은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의상과 함께 모방되어졌고 심지어 걸음걸이 까지 비슷하게 하려는 유행이 일었다. 즉, 30년대는 여성의 이상적 유행이 경제적 불황과 침체의 어두운 현실에 의해 진지하고 성인다운 세련됨이 강조되자 화장도 성숙되고 신비한 분위기를 갖는 정교함이 강조점이 되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획일적으로 모방되었다.

4)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고 경제권을 가지면서 화장과 의복, 머리스타일에 대한 흥미와 노력은 계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가치 성향이 더욱 자극되어 군수품 공장의 힘든 노동에 걸맞는 강한 얼굴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크게 그린 입술과 힘차게 그려진 눈썹이 일하는 여성의 얼굴에 자리잡았다. 조안 클라우포드(Joan Crawford)와 케사린 헵번(Katharine Hepburn)과 같은 영화스타들이 이러한 강인한 이미지를 대표하였다. 특히 조안 클라우포드의 입술(Joan Crawford's lips)이라는 나비 모양의 직선적이며 뚜렷한 입매가 크게 모방되었다. 또한, 전쟁 중에 성적

매력이 강조됨에 따라 당시의 영화배우에 의해 두꺼운 피부화장과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눈화장, 풍만하고 진하게 강조된 입이 초점이 되었다. 특히 선명하고 반짝이는 빨간 입술과 이에 어울리는 빨간색의 손톱과 발톱을 매치하는 것이 당시 유행하는 화장법이었다. 이와 같이 세련되고 인위적인 신비스러움을 지녔던 30년대의 이상적 여성미와 달리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성적 여신(sex goddess)이란 말로 표현되는 육체적으로 관능적인 외모가 40년대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화장도 가늘고 신비스러운 긴 눈썹 대신 두껍고 또렷하게 곡선적인 형태를 지닌 눈썹 등 관능적이면서 생동감있는 표현형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¹³⁾.

5) 1950년대

1950년대에는 경제적인 안정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이 사회에 팽배하여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여성상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¹⁴⁾. 산드라 디(Sandra Dee), 도리스 데이(Doris Day) 등과 같은 순진하고 소녀적인 이미지가 이전의 관능미와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대체하였으며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의 요정같은 우아함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로마의 휴일'에서의 짧게 커트한 머리 스타일과 굵은 눈썹 화장법이 유행하였다. 문화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며 컬러영화 · TV · 카메라의 등장으로 칼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화장품이 개발되면서 눈썹화장용 연필과 아이섀도우, 여러 색상의 립스틱이 등장하였다. 소피아 로렌(Sofia Villani Scicolone)은 굵고 각진 검은색의 눈썹과 아이라인을 강하게 치켜올린 강한 이미지의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섹시한 이미지 메이크업 등 영화 스타들의 메이크업이 유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과 관능미가 합쳐진 결정체, 즉, 모성애적이고 순진하면서도 애인과 남성에게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요부의 모습을 대표하는 마릴린 먼로의 관능적인 모습 또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밝은 금발, 빨간색으로 강조된 윤기 있는 입술화장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남성을 위한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품화하고 전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3)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 41.

14) 최은지(1999), 앞의 논문, p.13

이처럼 50년대의 여성의 미는 영화 스타들의 모습에서와 같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주면서도 순종적인 미가 중요시되면서 화장도 풍만한 곡선을 강조한 눈썹과 관능적인 눈 화장이 강조점이 되었고 선정적으로 붉은 입술 등의 표현 형태가 주도적이었다. 한편 50년대 후반에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등장으로 여성의 미에 젊음과 자유로움이 부여되면서 화장형태는 점차 다양해지는 전조가 나타났다¹⁵⁾.

6) 1960년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화장은 이제까지 영화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모방에 단계에서 벗어나 연령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표현형태와 다양성, 개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50년대까지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모방에서 60년대 이후부터는 미에 대한 기존의 가치 개념에 변화가 이루어져 화장은 사회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는 미의 표출수단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즉 입술화장과 눈썹화장은 최대한 흐리게 하고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했다. 눈꺼풀에 두꺼운 선과 하이라이트를 주었으며 인조 눈썹도 이중 삼중 사용했고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환타지 메이크업도 등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화장은 더욱 장식화되고 극단적으로 전개되어서 대담해졌다. 분홍, 초록, 보라색으로 염색된 기하학적인 가발과 함께 유선형으로 두껍게 그린 아이라인에 흑백을 번갈아 바르고 인조 속눈썹에 마스크라를 칠해 더 인위적으로 만든 눈화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화장은 밝음, 대담함, 짧고 경쾌하게 노출된 신체 등 당시 패션 특징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60년대에 미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영화배우에서 모델로 바뀌었고 모델 트위기(Twiggy)는 어린아이처럼 크게 강조된 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려진 조그마한 입과 5피트 6인치의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의 모습에서 초연함, 고뇌, 염세, 현대인의 냉철함의 이미지를 대표하며 전통적인 미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지 않는 특이함으로 주목되었다.

한편, 히피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메이크업 시간이 요구되고 히피의 이국적 취향은 민속적인 패턴과 꽃

15)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48

을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을 유행시켰다¹⁶⁾.

또한 60년대에 전개된 젊은 세대에 의한 사치적 관습과 가치 규범의 거부, 사회문화적 반향 운동과 그 밖의 여성해방운동, 성 혁명 등은 남녀의 성차의 구별을 흐리게 하였다. 따라서 유니섹스 룩(unisex look)의 등장과 함께 화장은 일반 남성들에게도 그들의 외적인 꾸밈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화장품업계 패션잡지와 미용 산업은 여성들에게 그들 자신을 가꾸도록 자극함으로써 미는 이제 거대한 규모를 가진 산업이 되었다. 영화, TV, 잡지로부터의 다양한 이미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진에 찍히는 미는 단순한 효과보다 더욱 새로운 충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제는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작가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상품이 되었다.

60년대의 미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감성의 등장으로 자유롭고 기하학적이며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한 상징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면서 화장도 여성의 전유물에서 연령과 성별의 확대를 가져와 각 구성원의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었다¹⁷⁾.

7) 1970년대

1960년대의 풍요로운 소비문화는 1973년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경향이 강해졌다. 60년대에 극단적으로 강조하던 눈과 창백한 입술 등 실험적인 젊음을 표현하였던 화장형태는 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얼굴 전체에 풍부한 색조를 부여한 성숙한 이미지로 변화였다. 60년대의 밝고 혁신적인 시대에서 70년대는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눈썹은 과거 30년대와 같이 정교하고 얇아졌으며 입술은 외곽선을 뚜렷하게 그리고 반짝이를 칠했다. 또한 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미는 60년대 환상의 창조물에서 사실의 산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의 성적여신(sex goddess of the seventies)으로 대표되는 파라 포셋(Farrah Fawcett)는 활력과 자연스러움의 매력적인 결정체로

16) 이명희(2004). 앞의 논문, p.42.

17)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58

자연스러운 화장, 어깨에 아무렇게나 드리워진 듯한 캐주얼한 머리모양은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젊은 여성들에게 유행시켰다.

1970년대 말에는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펑크(punk)라는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복장과 장식 및 퇴폐적인 이미지의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화장으로 표현하였다. 펑크 화장은 남녀의 구분없이 창백하게 표현한 얼굴에 이와 대조되는 검정색 아이라인과 직선적인 눈썹, 입술은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색으로 표현하여 공격적이고 지폐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갖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유로운 감성으로 성별을 초월한 하나의 개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의식의 새로운 화장 형태가 등장하였다. 여성은 짙은 눈썹과 아이라인만으로 눈을 강조하고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였고, 남성들은 여성과 같이 밝은 색채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가지 성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각각 공유하여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¹⁸⁾.

8) 1980년대

경제부흥을 이룬 고도 성장기로서 문화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조지아 호웰(Georgina Howell)은 활동의 시대,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 신분상징,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숭배,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개인주의, 무관심,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표 풍성, 헬스 및 미용에 의한 자기관리, 패스트푸드 음식 등¹⁹⁾으로 보았다.

1970년대 자연스러움과는 달리 화려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변했다. 개인적인 성공과 프로의식의 중시하며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와 여가를 즐기려는 최고의 전문직 집단인 여피(Yuppi: Young Urban Professionals)족이 등장하였으며 여성들도 전문직에서 남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70년대의 자연스러움과 달리 화려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변하였다. 눈과 입 모두가 강조되었는데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두껍고 진한 눈썹과 선명한 빨강의 공격적이면서도 단호한 이미

18)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66

19) Vogue. 1990년 1월, p.203

지는 남성과 같이 능력있어 보이는 넓게 각진 어깨와 가슴, 헐, 다리 모두를 강조하는 80년대의 거대한 성인다운 이미지와 교차되면서 더욱 강인한 여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브룩 쉴즈(Brooke Christa Shields)가 이제까지 성인의 세계였던 미와 패션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의 미를 대표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바라는 성적 자극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연령을 점점 저하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마돈나처럼 섹시하면서도 진한 화장이 유행하였다. 메이크업은 컬러보다는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강조하는 에코로지풍의 영향으로 내추럴 메이크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메이크업을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80년대 후반의 메이크업과 패션은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로 에코로지(ecology)라는 테마가 주로 다루어졌다. 색조화장으로 개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외선 부작용과 피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능성 화장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²⁰⁾.

9) 1990년대

20세기 과학의 발달은 유전공학과 생명복제 화학 산업의 성장과 환경오염,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었고 환경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교통수단과 전자통신의 발달,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인터넷 확산으로 글로벌리즘(Globalism)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모더니즘의 형식적이고 극단적인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화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패션의 분야에서도 비합리성과 전통성에의 회복,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90년대 초의 화장 경향은 30년대 장홀로우(Jean Hollow)의 짙고 붉은 입술, 40년대 라나 터너(Lana Turner)의 뚜렷한 눈매, 오드리 헵번(Audrey Hepbern)의 굵게 강조된 눈썹, 브리짓 바도(Brigitte Bardot)의 가짜 속눈썹과 반짝이는 분홍빛 입술 등등 모든 과거의 스타일이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었다. 이

20) 이명희(2004). 앞의 논문, p.47

와 함께 과거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기 보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혼성모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경향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이국적인 민속감각인 에스닉 메이크업이나 오리엔탈풍의 메이크업의 등장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화된 사고를 표출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재활용(Recycle), 생태학(Ecology)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여 천연 소재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상에 대한 선호가 레이어드, 그룬지(Grunge), 네오 히피 스타일, 오리엔탈리즘, 내츄얼리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해되어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이에 조화를 이루는 화장경향으로 색조가 옅어지고 가벼워졌으며 과거 의 히피풍을 재현하여 투명하고 거의 그리지 않아 희미하게 보이는 옅은 눈썹과 흐린 입술색이 주조를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여성들은 다시 진하고 화려한 화장을 해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여성스러움을 스스로 즐기게 되었다. 즉, 화장은 힘과 능력을 표현하려는 기존의 방패로서 혹은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주기위한 강조에서 벗어나 여성 스스로의 만족과 즐기기 위한 더욱 자유로운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²¹⁾.

1990년대 말에는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테크놀로지 이미지를 메탈릭한 칼라를 사용한 사이버 룩으로 선보였고 타투(tattoo)와 보디 피어싱(body piercing)은 젊은이들 층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에스닉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힙합 패션이 유행되었다. 이 시대의 메이크업은 1980년대의 여성의 사치적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이성에게 매력을 주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다양하게 나타냈다.

10) 2000년대

21세기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원하게 되었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시장개방화, 소비자 계층의 욕구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1세기 다양한 스타일들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으며 과거 양식이 재현되는 복고풍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초반을 지배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자연주의,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획일적 문화에서

21) 조은별(1996). 앞의 논문, p.75

부터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향수를 창조함으로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복귀를 주장한다²²⁾.

2000년 초 메이크업은 1990년대에 이어 계속되는 환경문제의 관심으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내추얼 메이크업이 유행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피부화장을 표현하기 위해 립스틱은 핑크 베이지, 살구색 등을 사용하였고 붉은 혈색을 강조하여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2001년에는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감성으로 글로시한 메이크업이 크게 유행하고 그을린 듯한 피부 톤의 효과를 위해 어두운색 파운데이션과 펄을 사용하여 글로시한 건강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특히 다양한 인조 속눈썹은 개성 표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각되었으며 표정있는 눈매를 연출하였다. 2002년 가을에는 스모키(smokey)메이크업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 아이 메이크업의 차용으로 모노톤의 아이섀도우와 검정 펜슬을 사용하여 눈 언저리를 어둡게 함으로써 신비롭게 표현하였다. 스모키 메이크업은 다소 과장되어 그로테스크적인 느낌으로도 표현되었다.

현대 메이크업은 주제와 소재의 수용범위를 넓혀 다양한 메이크업 영역을 확보하고 창조적이며 예술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예술분야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2003, 2004년 추동 컬렉션에는 1980년대 패션 스타일의 스타일이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생활방식, 연령, 성에 대한 구분보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21세기의 가치 성향을 반영한다. 기존 가치관의 해체에 따른 앞으로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모호한 앤드로지너스적인 메이크업이 현대적 감성에 부하되는 새로운 감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²³⁾.

2000 - 2008년대 화장문화는 199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오던 다양한 개성의 연출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껏 시도된 다양한 트렌드들이 공존, 조화를 이루며 전개되었다. 새롭게 제시된 것이 있다면 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 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들이 저마다 제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국적 메이크업 브랜드로 알려진 맥(MAC), 스텔라, 베네팩, 바비브라운, 슈에프라, VDVC(이경민) 등 메이크업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반영되었다.

22) 양진희 외5인(2005), 『메이크업 디자인』, 광문각, pp.152-154

23) 이명희(2004), 앞의 논문, p.50

Ⅲ. 해체주의

1. 해체주의 개념

해체란 기존의 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 처음의 구조를 우회하여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허공에 매 단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말하며 해체주의는 이분법적인 서구적 전통을 비판하여 구조주의²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 하나로 기존 이성 중심사고관의 회의에 의해 시작되어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해체 이론은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고 나아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 전반에 도전하고 있다고 간주된다²⁵⁾.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주의를 내부에서 '해체, 탈구조화하며 등장하여, 기존의 억압적 권위에 저항하고,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반발하며, 근원, 중심, 영원한 진리 등의 부재를 주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후기 구조주의는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함으로써 이성중심적 태도를 지향하고, 더 불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주체와 자아를 중요시 여긴다. 또한 후기 구조주의는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도록 강요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거나 정의 내리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특성을 지닌다.

해체주의는 이와 같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사조 내의 구체적인 하나의 이론으로서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J.Derrida)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초반 이래로 인문과학분야, 특히 사회심리학과 문학비평

24) 구조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체계를 중시하여 구조 안에 서 어떤 2소가 독립적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요소를 얹어매고 있는 형식아래서 오직 의미를 지닌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자아나 주체 등 개인의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행위를 객관화, 규격화, 조직화 시키려 했다. 구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현대예술은 표현보다 형식, 형태의 창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pp.81-84

25)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23

등에 영양을 끼쳤으며 이제는 신학, 역사학, 법학, 예술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해체주의는 궁극적으로 서구식 전통에 대한 비판방식으로 서양철학의 전통에서의 모든 믿음들이 허구임을 밝혀내려 하며, 비평이론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문학 및 철학이론이다.

이와 같이 데리다를 통해 거론되고 체계화된 “해체주의”는 기존의 이성 중심 사고관념을 무너뜨린 철학 사상으로 유일한 진리는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체 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열림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적탐색으로 예술, 디자인, 문학 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메이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데리다(J. Derrida)는 전통 서양철학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통하여 서양철학의 전통 하에서 모든 믿음들이 허구임을 밝히려 하였고, 그러한 비판의 전개를 위한 접근 방식으로 제기된 일반적인 전략이 바로 해체의 방법이다²⁶⁾. 따라서 해체주의란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써, 문학 비평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 해체와 모든 결론의 유보를 통해서 개념이나 진리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 상황의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 및 불안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지배 문화로부터 잊혀지고 소외당한 타자를 인정하여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²⁷⁾. 즉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왔던 타자(他者)를 인정하며, 불안정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데리다는 1966년 10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비평의 언어와 인문 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

26) 박연주(1995), 「 매니쉬 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

27) 김혜정(1998), 「 현대 건축형태 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5

하에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문과학의 언술 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라는 논문에서 레비 스트로스 (Levi-Strauss)와 소쉬르(Saus sure)의 연구 계획은 여전히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소쉬르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que de la presence)²⁸⁾이라 불리는 사유전통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이자 철학적 기본 입장이다. 또한 데리다는 '무엇이 해체주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해체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²⁹⁾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며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플라톤 이래 서구의 형이상학이 지배해 온 근원주의와 이성중심주의에서 생겨난 절대 기준이란 없으며,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됨에 따라 다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체주의 이론은 의미 체계의 불확실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³⁰⁾.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무질서와 불안정을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탐색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체주의가 파괴(Destruction)가 아닌 해체(Deconstruction)인 이유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의 내부에서부터 해체 혹은 탈구조하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보충, 차연, 산중,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 등을 들 수 있으며,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해체주의의 특성은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8) 데리다는 서양을 지배하는 지적 전통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모든 서양문화를 형이상학이라고 본다. 형이상학은 자연적 의미작용의 관계가 존재와 정신 사이에 있 디는 것을 가정하며, 정신 안에 이성과 사유가 있고 그 안에 사물에 대한 의미와 진리가_ 표현, 수용, 생산, 구성된다고 믿어왔다.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11

29) 김형효. 앞의 논문, p.16.

30) 조미영(1999), 「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9.

31) 김지연(1997), 「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 『복식』. 32호, p.11

1) 차연

차연이란 차이를 의미하는 difference라는 단어에서 같은 발음인 differance로 e를 a로 바꿔 만든 데리다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현전성의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³²⁾, 차이(Differe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난 것을 'differance'라고 하여, 명사적 기능 자체를 억지로 만들어 재기입한 것이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 · 공간의 초월과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 · 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차연의 논리는 동시성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며, 데리다는 차연을 형식의 전체성이나 응집성과 완전성과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차연은 정태적 개념이 아니며, 폐쇄적 전체체계의 구조 속에서 각 요소가 역할분담을 하는 기계론의 논리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의 차연의 차이는 레비 스트로스의 이항적 대립의 차이와는 다르다. 데리다의 차이는 이항 사이의 배척에 의한 각 항의 형식의 선명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른 상호간에 관계의 인연을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다³³⁾.

한편, 흔적(Trace)이란 기원으로서 현전이 먼저 존재하여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항상 기원이라는 사고방식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의 흔적으로, 기원의 기원이 된다. 흔적은 이미 형성된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남겨 하는 순수작용이다. 이는 곧 순수한 흔적이 차연(differance)인 것이다.

2) 상호텍스트성

데리다는 세계가 하나의 텍스트, 즉 언어적 객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 우리가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언어에 의해 명명됨으로써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되어진다. 데리다의 해체이론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이므로, 자율적인 존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징을 지니기에,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32) 이광래, 앞의 논문, p.124.

33) 김형효, 앞의 논문, pp.85-87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감을 의미한다³⁴⁾.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여, 언술 행위의 형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텍스트는 서로상대의 텍스트를 인용 할 수밖에 없기에, 상호 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데리다의 사유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텍스트로 간주된다. 즉, 사회나 우주, 인생이나 자연, 그리고 역사도 텍스트이고 문자인 셈이고 이런 텍스트보다 앞선 단계란 있을 수 없다³⁵⁾. 텍스트에서 한계란 무의미하고 영원하거나 고정 불변한 현존적 의미가 없다. 텍스트는 상대의 텍스트를 대립하고 인용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고,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하게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인급, 병행인용³⁶⁾,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³⁷⁾.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여, 주어진 한 텍스트가 그 이전에 존재해 있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요소들을 취해 오는 것으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거부되고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기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간다. 즉,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획일화 일원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³⁸⁾. 한 예로, 급격한 산업화 현상은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을 붕괴하였다. 이것은 성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남성다운, 여성다운과 같은 성의 요소를 해체하여,

34) 조말희(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54

35) 김형호(1993), 앞의 책, p.20.

36) 두 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채 그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텍스트(text)는 거미집 모양의 망사조직(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 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상황, 다른 영역(회화, 음악 등)으로의 의식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텍스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37)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38) 조말희, 앞의 논문, p.54

성 역할에 따른 차이를 무효화시킨다. 성에 대한 진리와 절대를 불신하고 대립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성에 대한 시각을 해체 한다³⁹⁾.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성을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것으로 일방적인 성이 아닌 공유하는 성, 동등한 성, 개방된 성, 적극적인 성⁴⁰⁾이라는 의미에서 제 3의 성은 남성에서의 여성적 이미지, 여성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성을 일컫는다. 앤드로 지니(Androgyny) 즉 양성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⁴¹⁾.

3) 불확정성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데리다의 불확정성은 모든 것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여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정성은 미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불확정성은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형태, 보편적인 형식이 없는 형식으로 어떠한 소재를 인체에 사용했을 때 연출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으로, 이는 표현방식에 따라 변형 되는 부정확성, 무결정성을 추구한다.

4) 탈현상

해체주의에서 데리다가 추구하는 탈현상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이 원론적인 체제 즉, 존재.부재, 실제.허구, 본질.현상, 구상.추상 등에서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파괴하고 떨어져 나옴으로써 부재, 허구, 현상, 추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즉,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탈현상으로 형태의 단편화와 왜곡이 나타나게 되며 전체의 이미지는 부유하는 형태를 나타낸다⁴²⁾.탈현상은 탈구성과

39) 조미영, 앞의 논문, p.15

40) 한국일보, "사회가 변한다. (성도 개인, 행복관. 인식확산)", 1996.7.19.

41) 김주현(1999), 「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6-17

42) 김루현 외(1999), 「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 『음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p.83

탈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탈구성(Discomposition)은 해체디자인에서 변위나 간격을 둔 행위 과정으로서 텍스트를 분해하고,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써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 관계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분해 . 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기술적 혹은 경제적, 실용적 관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간격이나 변위를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 보다는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⁴³⁾. 즉 혼란, 무조직성, 임의성을 이용하여 통일성, 전체성을 파괴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구성의 원리는 일정한 규칙이나 룰이 없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 탈중심(De-centralize)"은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며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 세계를 지향한다. 60년대 이후 특수한 개성 추구가 주된 역할이 되자 비서구의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비주류문화⁴⁴⁾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하여 하찮은 것, 일상적인 것, 과거에는 추하다고 여겨 소외된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즉, 우상으로써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해 허무주의적 반(反)문화를 지향하고, 제 3세계의 문화나 비주류의 문화의 요소를 차용하여 본래의 의미나 용도에서 이탈하여 정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창조한다.

43) 임광숙(1998), 「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2

44)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아시아 및 소수 민족 문화, 스트리트 스타일의 하위문화 등을 포함한다.

IV.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표현기법

I.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개념

인류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인간들은 타인에게 미적 가치를 부여할 미의 위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초기 원시적 분장이라 할 수 있는 가면이나 채색을 하였다⁴⁵⁾. 원시적 분장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적인 성적본능뿐만 아니라 악귀나 질병으로 부터 보호를 위한 주술적, 종교적 수단 및 성별(性別)이나 소속집단, 사회적 지위 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신체 보온이나 보초를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써 메이크업을 하였다⁴⁶⁾.

로마에서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여성은 소금 없는 빵과 같다 고 표현할 정도로 메이크업이 중시되었다. 패션의 흐름이 토탈지향으로 부각되면서 메이크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메이크업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메이크업은 조형요소를 얼굴이라는 조형물에 더하여 만드는 것으로, 이는 조형예술 의 한 분야로서 메이크업을 한 사람의 느낌과 생각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 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다. 더불어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 표출하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⁴⁷⁾.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켓워크에서의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오프 꾸뛰르의 메이크업은 오프 꾸뛰르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을 위해 귀족적이고, 우아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프레타 포르테가 기능성을 강조한 패션인 만큼 실용적이고 모던하며 도회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였다⁴⁸⁾.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전후로 켓 워크의 복식과 메이크업에서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 표현되었다. 메이크업의 기능과 표현방법의 비관련성으로 각 요소간의 모순적인 경향을 극도로 표현함으로써 초월적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켓워크에 등장한 모델들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자크 데

45)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자유문화사, p.25.

46)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pp.21-22

47) 노선옥(1998), 「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 슈 우에무라와 일라나 하카비의 메이크업 아트를 중심으로 - 」,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 -2.

48) 강경화(2000), 『현대 메 이크업 총론』, APC, pp.106-107

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인 우연적 의미, 퇴폐적 의미, 유희적 의미, 양성적 의미, 민속적 의미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우연적 의미

우연성이란 언제나 관계성과 관련을 갖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우연이라 부를 때 그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적인 결합에서 생겨난 것으로 과학과는 다르다. 과학에서는 이미지가 도식적이면 도식적일수록 진리에 가까운 듯이 보여 지지만 예술에서는 여러 가지 외형에서 노출된 발췌되어진 단순한 형태를 만을 가지고 진리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범위가 넓은 좁은 간에 예술은 원형적인 본질을 끊임없이 새로운 양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개인적 세계의 우연성이라는 재고목록과 자기견해의 우연한 전망을 사용한다⁴⁹⁾.

현대 추상미술의 변천과정에서 특기할만 것은 인간의 내면요소인 무엇과 우연성의 등장이다. 우연성은 초기 추상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 회화를 지배해 왔는데 작가들은 창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우연성의 원리를 선호해 왔다. 작가들은 무의식의 작용에 의한 순수한 표현으로서 우연을 받아들인 것이다.

1910년 다다주의에서 시작하여 1920년에서 30년대의 초현실주의, 2차 세계대전 후의 추상주의, 1950년대의 신사실주의를 거쳐 1970년대의 이른바 신 회화로 불리는 새로운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무의식에 위한 우연적인 표현기법은 다수의 작가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현대 미술 속에 이용되어 왔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무의식의 세계, 꿈, 광기, 무의식의 비합리적 세계를 우연의 효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연의 효과가 미적 잠재력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화면에 실현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체주의의 탈 구조현상에 접목시켜 우연적인 사태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 것이다. 우연적인 효과를 회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표현기법으로는 마아블링, 불기, 뿌리기, 떨어뜨리기, 흘리기 스크래치, 타시즘, 데칼코마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연적이지만 탈 구조현상의 의미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우연적 의미의 표현기법을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응용하여 드리핑메이크업, 데칼코마니 메이크업으로

49) 김재은 역(2989.) 『예술심리학』, 이화여대 출판부, p.238

50) 송영복(2005), 「2창의력 중심의 미술교육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분석하였다.

(1)드리핑(Dripping)메이크업

드리핑(Dripping)이란 물감 흘리기, 뿌리기(dripping)을 의미하며, 붓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화면에 흘리기, 뿌리는 기법으로 20세기 초 M.에른스트가 한 때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액션 페인팅 화가들 특히 J.폴록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회화스타일을 창조했던 1940년대부터이다. 이 기법은 폴록에 의하여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행동이나 숙달된 서예적 동작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이 기법은 오토마티즘(Automatism)⁵¹⁾과 유사점이 많으나 중요 목표가 형식적 요소의 개발이라는 점과 잠재의식을 탐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IV-1>은 자유로운 유희 충동을 발산시키듯 눈 주위를 손가락으로 터치한 듯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그림 IV-2>는 헤어라인 외곽을 회벽을 칠한듯 번지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림IV-3>은 낙서 형태로 불규칙한 붓 터치로 장난기스러운 유아적인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림 IV- 4>는 물감을 계속 덧칠하는 방법으로 눈 두덩이를 몽쳐진 느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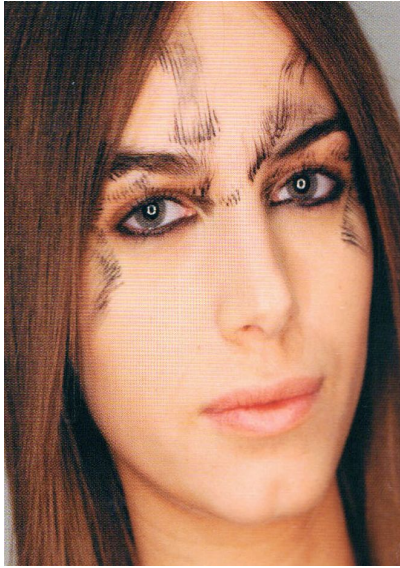


<그림 IV-1 > Mise en scene
04 SS Paris Milano



<그림IV-2 > VIVIENNE WESTWOOD
Collection vol109 2005 SS

51) 본래는 쉬르리어리즘(초현실주의)의 용어. 전후 미국작가들에 있어서는 드리핑 등의 기법에 의해 화가 내면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작품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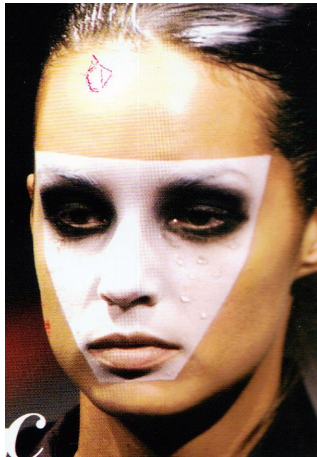
<그림 IV-3 > Guy Laroche
03-04 FW collection Paris
Milano Make up

<그림 IV-4 > 04 SS Paris Milano

(2) 데칼코마니(Decalcomanie) 메이크업

전사법이란 뜻으로 접었다 편 종이의 한 쪽 면에 물감을 칠하고 눌렀다가 펴면 우연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독일의 에른스트가 널리 응용하였으며 현대 미술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응용한 오토매틱한 회화 기법을 말한다. 해체주의의 우연적인 기법들을 통해 데칼코마니 기법은 연상적인 우연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어떤 다른 이미지로 변화할 때 환각을 가로지는 방법으로 정신분석학적 통찰력을 초월하여 자신도 알 수 없는 형태와 질감을 획득하게 하는 기법이다.

<그림 IV-5> 역삼각형의 형태의 사각대칭 형태로, <그림 IV-6>은 원형의 대칭형태로, <그림 IV-7>은 외곽을 칠해주는 대칭형태로 그리고 <그림 IV-8>은 나비의 형태로 데칼코마니의 전형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IV-5> Boudicca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M Paris

<그림 IV-6> John Galliano

Collection vol00 2003 SS



<그림 IV-7> Boudicca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그림 IV-8>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2) 퇴폐적 의미

퇴폐주의는 당대의 위기를 반영한 극단화 현상으로,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방가르드의 일반적인 사명과 기능을 새로운 하나의 연속으로 여는 것 또는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일체의 가치를 포기하는 절망론, 쾌락주의, 심미주의, 자아의 파괴를 자초 하는 병리현상 등의 소위 세기말적 병은 예술가들의 영혼을 지배한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와 절대적 세계에 대한 갈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역동적 희구들을 이론적 체계로 세운 것이 바로 데카당스이다⁵²⁾. 퇴폐성이란 왜곡의 형태로써 추한 것의 개념에서 확장된 의미로, 그로테스크하거나 혐오스런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에 대한 요구를 노골화시켜 전통미를 해체하고 탐미적 경향과 절대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의 파괴와 윤리, 도덕의 타락현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퇴폐성을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으로 유추해서 설명하였다.

(1) 데카당스 메이크업(Decadence Make-up)

데카당스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허무적이며 심미주의적 문예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데카당스 미술은 문화의 미적 퇴폐 과정이나 예술적 활동이 정상적인 힘 또는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으로 빠지는 경향으로 흐르고 병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패션에서는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사용,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강조된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의미한다⁵³⁾. 데카당스 메이크업이란 현대의 암울한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으로, 남성적인 강인함과 퇴폐적인 분위기, 강한개성, 유니섹스한 스타일에 골격미를 강조한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였다⁵⁴⁾.

본 연구에서는 데카당스 메이크업을 혐오스런 문양의 타투나 병적인 분위기의 색상,성을 자극시켜 거부감을 일으키는 메이크업이라 정의한다.

데카당스 메이크업의 종류인 핑크의 대표적 표현 아이템인 타투는 원

52) 한성철(1996)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5.

53) 정삼호(1996),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p.105

54) 강경화, 앞의 논문, p.82

시 시대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얼굴과 몸에 칼자국을 내어 장식적인 것보다는 소속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혼돈과 무절제 속에서 오는 폭력성과 집단성, 저항성의 시대정신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타투라는 형식만을 차용하고 있다. 즉 '무조건'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게 주장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방식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⁵⁵⁾.

<그림 IV-9> 눈썹의 일 직선 불규칙한 표현 입술의 과장된 축소, 눈 주의 붉은색으로 혐오스러움을, <그림 IV-10>는 울어서 번진 듯한 검정색의 샤도우로 눈주의 표현. 입술의 형태 무시, 과장된 눈썹 표현, 퇴폐적 표현을, <그림 IV-11> 검정색 샤도우, 눈 주위의 반짝이는 비주 장식, 번짐 효과 입술의 과장된 표현 탐미적 분위기를 그리고 <그림 IV-12>는 눈썹의 과감한 표현, 속 눈썹 과장 표현, 비전형적 입술선으로 퇴폐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IV-9> John Galliano <그림 IV-10> John Galliano
07-08 FW Paris Milano New york 7-08 FW Paris Milano
New york

55) 동아일보, 1995. 6.15일자



<그림 IV-11> Christion Dior

Collection vol09 2005 SS PM Makeup

<그림 IV-12> Mise en scene

04 SS Paris Milano

(2) 노테스테(Low tast) 메이크업

노테스테란 혐악, 증오, 저속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깨끗함, 세련됨, 우아함, 단정함과는 정반대되는 분위기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미와 추함의 경계는 극히 모호하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추악하고 저속한 것에도 의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아르누보시대의 모티브로 사용하던 곤충과 파충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자연 요소를 이용한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 만들어졌다⁵⁶⁾.

본 논문에서 노테스테 메이크업이란 곤충의 더듬이나 동물의 깃털 등을 이용하여, 혐오적이고 퇴폐적이며 저속한 뜻의 노테스테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이라 정의하였다. 메이크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인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에서 파생된 것으로, 메이크업에 곤충과 동물의 요소를 응용함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욕구를 은유적이고 역설적

56) 정삼호, 앞의 책, p.105

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아닌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를 메이크업에 차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간 상호텍스트성이 다. 또한 조형예술로서 메이크업이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로 인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성은 불확정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IV-13>은 새의 깃털 형상화, 짙은 눈썹, 붉은색 새도우, 위장성 퇴폐성을, <그림 IV-14>는 검정과 흰색의 짐승의 뿔로 얼굴을 위장하는 표현을, <그림 IV-15>는 동물의 뿔을 장식, 눈 흰색 샤도우, 과장된 속눈썹으로 동물적 표현을, 그리고 <그림 IV-16>은 동물의 뿔, 속 눈썹과장 되게 표현, 샤도우의 흰색으로 동물의 눈 형태를 나타냈다.



<그림 IV-13>
07-08 FW Paris Milano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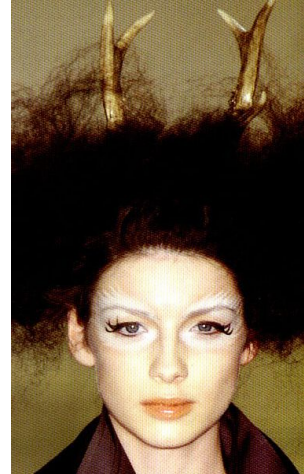


<그림 IV-14> Keita maruyama
03-04 FW Paris Milano



<그림 IV-15>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그림 IV-16> Viktor_Rolf

Fem collections vol08
2004-05 FW

(3) 그로테스크 메이크업(Grotesque Make-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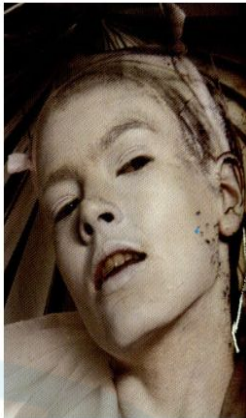
애매모호하며 기이하고, 들어보지도, 믿을 수도 없는 현상을 지칭할 때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로테스크는 원래 조형예술의 영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유럽사회가 붕괴되는 시점인 1500년 무렵 로마유적의 발굴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당초무늬의 벽화양식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의 그림 속에 인간적 요소와 동·식물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결합된 양식이 발전했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은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자아냈다.

클레이버러(Arthur clayborough)는 그의 책 "영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in English literature,1965)"에서 18세기 초 그로테스크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형용사로 우스꽝스러운, 뒤통그러진, 부자연스러운 명사로는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을 전통적 메이크업과는 달리 비정통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괴기스럽기도 하고, 부자연스러워 애매모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림 IV-17>은 괴기스러운 시체의 피부표현 및 애매모호한 메이크

업 표현을, <그림 IV-18>은 과장된 눈썹표현, 흰색의 피부, 어색한 입술 연출, 눈썹 표현을 그리고 <그림 IV-19>는 우스꽝스러운 속 눈썹, 잡티, 광대와 같은 눈썹 등을 표현하였다.



<그림 IV-17>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New



<그림 IV-18> Christian Dior
03-04 Milano Paris London
York



<그림 IV-19> Fatima Lopes
03 SS London New York Milano Paris

3) 유희적 의미

유희적 의미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의미한다⁵⁷⁾.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유희적 의미는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텍스트를 해체하거나 해체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킨다. 즉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를 준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주며, 고상하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하류문화의 저속한 이미지, 촌스럽고 유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유희적 의미는 회화의 한 형태를 도입한 메이크업으로써, 비구성적이며 탈형식을 보여주는 그래픽 메이크업과 소재와 그 위치의 의외성으로 인해 웃음을 자아내는 콜라주 메이크업 및 공격적 형태와 자극적 문양의 타투 메이크업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래픽 메이크업

그래픽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그라피코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쓰다’라는 것이 원래 뜻이며 ‘도식화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⁸⁾. 뿐만 아니라 정형적인, 비인간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추상적인 그래픽 디자인 또는 그래픽 아트⁵⁹⁾를 주제로 한 메이크업은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창출하여 불확정성을 나타내며, 절대적 질서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작용 방향을 왜곡시킴으로써, 본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탈중심화된 새로움을 보여준다. 표현기법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직선, 사 선, 원, 삼각, 사각)를 응용하거나 색채배색과 모티프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⁶⁰⁾. 따라서 유머스러운

57)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p.75

58) 김영호(1998), 『시각디자인의 구성원리』, 태학사, p.13

59) 평면위에 도형이나 색채로 표현된 모든 조형으로써 단순히 기하학적인 선에서부터 색채배색과 모티프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회화, 도안, 인쇄 등 평면상에 도형을 나타내는 기술을 총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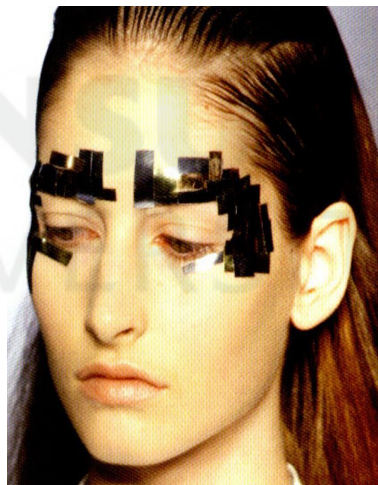
60) 정삼호, 앞의 논문, p.102

기호와 메시지 등을 그려 넣는 그래픽 메이크업은 복잡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긴장을 풀고 인간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⁶¹⁾. 이처럼 그래픽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서 고려되는 얼굴의 구성요소를 해체한 탈구 성적이고 탈중심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현대의 물질 문명사회를 현상적으로 나타내며,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 사회를 비판함으로써 자신과 사회를 진지하게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IV-20>은 빨강, 파랑, 흰색의 선적인 기하학적 표현을, <그림 IV-21>은 기하학적 형태인 색채 모티브로 표현하였고, <그림 IV-22>는 사각의 붉은색 틸을 새도우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IV-23>은 삼각형의 형태 속 눈썹 표현, 아이라인 연출, 직사각형 형태의 패치 이마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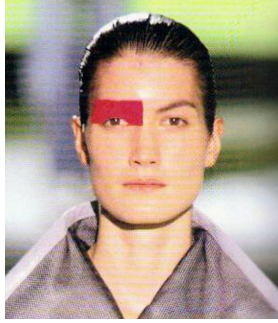


<그림 IV-20>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그림IV-21> Collection
vol13 2007 SS PMN(p026)
make-up Givenchy

61) 장미숙, 앞의 논문, p.48



<그림 IV-22> Y-3
04 SS Paris Milano
London



<그림 IV-23> Christian Dior
03-04 FW Fem Paris

(2) 콜라주 메이크업

콜라주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콜레로 '풀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콜라주는 아교로 붙임, 풀칠하여 붙이기를 의미한다. 콜라주 기법은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을 깨고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 예를 들면 1912년 파블로 피카소는 등의자가 있는 정물이란 작품에서 캔버스 위에 등나무로 엮은 무늬를 직접 그려 놓는 대신 그 무늬가 인쇄된 천을 캔버스 위에 붙여 작업을 하였다⁶²⁾.

메이크업에서는 이질적 소재의 혼용, 복합을 통한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레이스(race)조각, 플라스틱, 모조품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거나 인조 속눈썹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 메이크업을 이질적인 재료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시키는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메이크업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극적인 요소에 기이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재치와 유머를 전달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심각하고 진지한 것보다는 우스꽝스러운 것, 엉뚱한 것으로 감성적 뿐만 아니라 지적, 정신적 유머효과를 초

62) 정삼호, 앞의 논문, pp.103-104

래한다. 이는 도시생활의 긴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표현된 것이며, 단순히 조롱이나 냉소가 아닌 사회 정화의 의지를 담고 있다.

콜라주는 메이크업 재료의 한계를 탈피하여 다른 텍스트로부터 차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해체주의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과 탈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콜라주 메이크업은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불확정성을 지닌 메이크업으로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개성이 강한 젊은 세대에게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24>는 속 눈썹과 눈썹 형태를 다른 소재로 표현,<그림 IV-25>는 흰색의 깃털로 아이 새도우로 표현,<그림 IV-26>은 눈썹, 볼터치를 다른 소재로 붙여주고, 비주를 이용해 새도우로 표현하였으며,<그림 IV-27>은 눈썹을 레이스천으로, 속 눈썹은 동물의 깃털로, 입술은 비주로 표현하였다.



<그림 IV-24> Christian Dior

Collection 02-03 FW 03-04
Paris Milano

<그림 IV-25>

Milano Paris London New York



<그림 IV-26> John Galliano
03-04 FW Milano Paris
London New York



<그림 IV-27> Christian Dior
03 SS collection London NewYork
Milano Paris

(3) 타투메이크업

문신에 해당하는 영어인 타투(Tattoo)는 남태평양 타히티 어원 Tattaw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많은 폴리네시아어로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 Ta에서 유래되었다.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1769년 타히티 (Tahiti)의 탐험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몸을 동물의 뼈로 만든 작은 도구들로 몸을 찌거나 뚫어 흠집을 내고 거기에 기름기가 있는 땅콩 등을 태운 연기를 이용해서 만든 진청색 또는 검정색 염료로 채운다. 원주민들에 의해 타타우(Tattaw)라는 이 방법을 피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데 그들이 열 살이나 열두 살쯤 되었을 때 몸의 특별한 부분에 행해진다는 격에서 알 수 있다.

제임스 쿡이 타타우에서 유래된 타투라는 용어를 서구에 소개하기 전에 이미 서양에서도 피부에 상처를 내어 무언가를 새겨 넣는 행위의 명칭으로 프릭(prick) 혹은 마크(mark)라는 용어가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타타우는 피부를 소재로 하는 민속예술(ethnjc art)의 경향이 강하다면, 프릭 혹은 마크는 새기고자 하는 내용의 문화적 의미보다는 단지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에 새기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일컫을 뿐이었다. 타투는 민속예술의 경향이 강하고, 타타우는 BC 15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전해온 라피타(lapita)라는 도기의 장식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라고 한것을 보면, 타타우와 라피타의 유사성이 바로 타투가 순수예술에서 비롯된 장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신이란 피부에 상처를 만들어 색소 등의 물감을 넣어 글씨나 그림, 무늬를 새긴 것을 말한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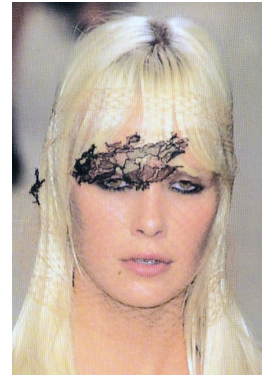
타투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의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피부에 시기는 문양의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는 문신이 서양의 타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신은 타투에 비해 어원에서 신체에 형벌을 새겨져 표시하는 징벌적 기능이 직접적인 기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신이라는 용어가 패션으로서의 신체장식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체장식을 패션의 한분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타투를 신체장식을 지칭하는 포괄적 패션용어 로 서술하기로 한다⁶⁴⁾.

20세기 들어 이러한 반목은 점차 커져갔으나 코스메틱 타투의 유행을 말미암아 타투는 서구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70년대의 반사회적인 양상에 발 맞추어 타투는 재평가 받게 된다. 그 결과 타투에 관련된 많은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고 타투의 고객층도 점차 다변화되고 대중화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핑크, 히피 스타일과 함께 하위문화층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이 창조된 것이다. 현재 타투는 특히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대중적인 하나의 스타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IV-28> 붙여주는 소재로 타투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그림 IV-29>는 타투의 모양을 한쪽 눈에만 표현하였다.

63) 선혜미(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타투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64) 송남철, 박숙현(2007), “타투(Tattoo)와 문신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교”, 「의류학회지」, 31(1), pp.114-118



<그림 IV-28> 05-06 FW PM

<그림 IV-29> Lanvin 04 SS
Paris Milano

4) 양성적 의미

최근 세계 패션계는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으로 경계가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조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파괴 본능이 복잡하고 대중화, 익명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회 · 문화 ·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⁶⁵⁾.

앤 홀랜더(Anne Hollender)에 의하면 의복은 성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 패션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⁶⁶⁾. 본 논문에서의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서, 제 3의 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양성성은 데리다의 성의 상호텍스트성과 포지올리의 모호성에 기인한 특성이

65) 김경아(199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p.4

66) 채금석 역(1996), 『의복과 성』, 경춘사, p.13

다.

프레드 데이비스에 의하면, 진정한 양성화는 생물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의복과 외모의 성적인 특별한 요소를 철저히 말살하거나 혼합,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모스키노는 디자인의 기술과 감성, 이성과 반이성, 안과 밖, 첨단과학과 자연의 신비 등 정반대의 개념과 사실들은 동전의 앞과 뒤, 여자와 남자처럼 이 세상에서 반드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⁷⁾. 그러므로 성 이미지의 혼합은 상식을 넘어선 보다 자유로운 개성에 따른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양성적 특성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의 착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양성성은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으로 설명하였다.

(1)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되었고, 세계화 · 다원화 시대의 돌입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감각을 추구하였다. 시대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감각을 추구하였다. 시대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여 패션에 양성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을 자신의 성과 조화롭게 지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다. 성의 혼합 이미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설명되는데,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한다⁶⁸⁾. 또한, 앤드로지너스는 젠더리스⁶⁹⁾에 비해 양성적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된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성성을 양성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젠더리스를 앤드로지너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래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으로 여성이 눈썹을 남성처럼 굵고 길게 그리거나 여성이 본래의 얼

67) 김경아, 앞의 논문, P44

68) 위의 논문, p.39

69) 성이 없는, 무성의, 중성적 요소를 지님.

굴에 가깝도록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한 것⁷⁰⁾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욱더 의미를 확대시켜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이란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 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 된 메이크업이며, 남성 또는 여성과는 차별된 성 이미지를 지닌 메이크업이 라고 정의하였다.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메이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행해지고 있으며,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밝은 컬러로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허세를 허물었다. 또, 여성은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어둡게 칠하거나 마스카라나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나 또는 남성의 수염을 착용하거나 머리를 짧게 잘라 남성성을 표현한다. 이것은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의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의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성적특성을 교차시킨 것이다⁷¹⁾.

어두운 색이 남성적이라는 이미지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젊은이들이 하드 록에 열광하던 1980년대의 보이 조지의 블랙 메이크업은 남성이 메이크업을 하는 행위는 여성성을 도입한 것이며, 어두운 색조의 화장은 남성적인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색조에서는 남성적 요소를, 메이크업 형식에서는 여성적 요소를 포함한 양성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IV-30>은 검정 아이 새도우와 모자로 남성적 이미지를, <그림 IV-31>은 검정 글로쉬한 터치의 아잇새도우와 입술의 번짐으로 남성성을, <그림 IV-32>는 남성적 모자와 안경의 모양, 새도우로 남성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림 IV-33>은 아이 새도우 각진 얼굴, 입술의 생략으로 남성적 느낌을 표현하였다.

70) 패션신문 사진편집팀(2000), 『신 패션용어 사전』, 주간 디자인 신문,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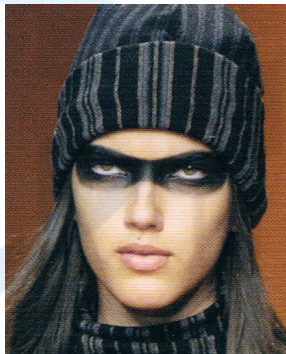
71) 채금석, 앞의 책, p.40



<그림IV-30> John Galliano
2007 fw RTW



<그림 IV-31> Fem Beauty Milan
NewYork 04-05FW



<그림 IV-32> JC de Castelbajac
03-04 FW Paris MilanoMake up



<그림IV-33> Fem collections
vol11 04-05 FW

5) 민족적 의미

민족적 의미는 메이크업의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점이 해체주의 이론의 차연으로 설명된다. 과거와 연관되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는 것이며, 텍스트가 공간적 · 시간적으로 분리되거나 합성된다. 그러므로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차연은 메이크업에서 모

든 불변의 의미를 제거하고 메이크업의 본래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990년대 후반 세기말적 불안감과 역사주의, 복고풍의 표현이 나타났는데 복고 무드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첨가함으로써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현은 단어 자체가 이미 중심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체이론에 있어 기호의 재현 가능성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전 시대의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과 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조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창작의 한계를 과거의 모티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1985년 파리의 오프 꾸뛰르 패션쇼에서 이러한 양식을 차용하였고, 메이크업도 과거가 반영된 요소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와 중세의 양식에서부터 추상표현주의, 입체파, 옹아트, 미니멀리즘 등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양식사적 특성을 혼성모방의 형태로 차용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동경과 창조의 한계성에 부딪치면서 과거의 것에서 모티프를 찾아 조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해체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민족적 의미는 해체주의의 시간의 의미를 파괴하여 차원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차원 개념과 포지올리의 역사주의와 미래주의에 기인한 특성을 말한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역사성은 과거의 형식을 차용하되 과거의 의미와 과거의 상징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혼성모방, 변형, 삭제의 기법으로 표현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민족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도 사용 되었으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화이트 컬러를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과 코올 메이크업,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특성이 공존하는 핑크 메이크업과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을 유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화이트 메이크업

서구사회에서 주체는 백인이며, 이는 보편적인 인간성의 절대 기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는 역사적으로 깨끗함, 순수함, 우월성의 의미를 지니며 상위계층을 상징해 왔다. 하얀 피부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며, 메이크업은 단지 미적 표현만이 아닌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리하여 심한 부작용 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페이스 트라는 백납분을 사용해 얼굴을 하얗게 하였고⁷²⁾, 로마에서도 권위의 상징으로 얼굴, 목, 어깨, 팔 등에 백 납분을 발랐다⁷³⁾.또, 화이트는 애도의 의미나 패자를 의미하기도 하며, 과거의 컬러이면서 미래의 컬러이며, 시작과 완성의 극단적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이다.

이렇듯 화이트는 개방성을 지닌 컬러로서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 석이 가능한 컬러이며, 화이트 컬러를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⁷⁴⁾은 현재 통 용되고 있는 용어로, 컬러에 의해 분류된 메이크업의 한 형태이다.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서 화이트 색상의 등장은 복고주의 한 영향으로 세기 말의 어두운 현상과 사회 병폐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월성과 권위의 절대 기준을 탈피하여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컬러의 의미를 지닌다.

고대부터 사용되어오던 화이트는 19세기 전반의 유럽에서는 매력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컬러로 흰색 화장품의 사용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후 파리나 런던의 컷워크에서 화이트 색상은 핫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에 화이트를 컬러를 도입하여 화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붕괴하였다. 피부 컬러뿐만이 아니라 가발, 입술이나 눈 손톱화장에 이르기까지 화이트는 새로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화이트 메이크업은 엠마누엘 웅가로, 티에리 뷔글러, 헬무트 랭, 비비안 웨스트우드, 칼 라거펠트, 크리스찬 디올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선보여졌다. 화이트 컬러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컬러가 현재의 메이크업에 표현됨으로써 과거를 재해석하기도 하며, 현재는 곧 미래의 흔적의 역으로써 미래를 해석하기 위해 현재에 표현되기도 한다.

이 메이크업의 역사는 일본 에도시대의 노래와 춤과 연기로 이루어진 총체 연극인 가부키 메이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이트페이스 크림과 화이트 새도우를 이용해 얼굴 전체를 칠함으로써 전통적이고 단정

72) 강경화, 앞의 논문, p.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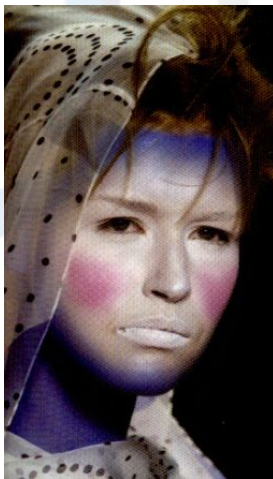
73) 김영경(1885), 「 이집트 장식 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10

74) 송혜선(1997.1), White Magic, Vogue(K),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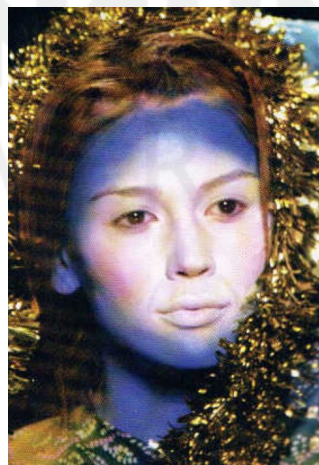
한 모습이 아닌 호색 적이고, 해학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는 하류 문화 외설적이고 저속한 이미지가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연출된 것으로, 하이패션에 대한 탈중심 현상이며, 과거 동양의 메이크업이 서양의 디자이너에 의해 새롭게 표현된 것으로 해체주의의 차연과 T.P.O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껍고 창백한 화장에 약간 낮은 볼 화장, 가늘게 곡선진 눈썹, 작고 장미꽃 모양의 입술은 차용하였지만, 인조 깃털과 아이라인의 붉은 라인과 목에 붉은 상처는 흰색과 대조를 이루어 "로 코코시대의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퇴폐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화이트 메이크업은 민족적 의미의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에 이문화적인 요소를 병치시켜 시간성과 공간성의 해체와 절충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림 IV-34>는 흰 피부화장과 붉은 볼터치를, <그림 IV-35>는 민족적 느낌의 흰 피부와 수줍은 볼터치로 표현하였다.



<그림 IV-34> John Galliano
Collection vol00 2003 SS



<그림 IV-35> John Galliano
collection vol00 2003 SS

(2) 코울 메이크업

화장이 시작된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벽화나 토우의

출토 및 여러 문헌 자료를 볼 때 화장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고대 이집트인은 눈을 신의 상징으로 여겨 눈 화장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바람이나 곤충, 모래,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검정 화장 먹을 이용한 아이라인 기법으로 관자놀이 방향으로 길게 그린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⁷⁶⁾. 이렇듯 코울은 메이크업의 주술적 기능, 장식적 기능 및 신체보호 기능을 가진 재료로서 사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현재 아이 브로우에 사용하는 펜슬은 눈썹먹으로 불리는데, 고대시대 화장 먹, 눈썹먹으로 불렸던 코울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또한 아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는 과거 코울이 눈을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지닌 제품이며, 코울과 동일 명칭으로 불리는 눈썹먹과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⁷⁷⁾.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에 이용되는 제품 중 분말 상태가 아닌 액상의 제품으로 눈썹이 아닌 눈에 사용되는 아이라이너를 과거의 코울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코울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오늘날 코울의 사용은 과거의 코울을 차용하였으나 장식적 기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코울을 그려 넣은 두께의 변형이나 색상에 변화를 주어 사용기법을 해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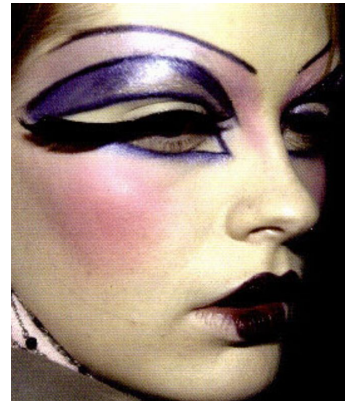
한편, 현대에 사용되는 코울의 색상은 원색적인 컬러에서부터 파스텔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존 갈리아노는 흑발의 이집트 헤이스타일을 금발의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눈썹은 연장시켜 눈 꼬리와 연결되게 하고, 펄이 가미된 스카이 블루의 코울을 칠하였다. 또, 눈 꼬리에 삼각형의 빨간색 코울로 눈동자와 함께 확장되어 보임으로써 괴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울 메이크업은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메이크업으로 과거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었던 코울을 현대적 해석을 통해 표현된 것이며, 현 사회의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하여 과장,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75) 진종연, 김형률(1999), 『화장품과학』, 도서출판, 정담, p.2

76) 한명숙, 앞의 책, p.16

77) 황정원(1995), 『화장품학』, 현문사, pp.121-126

<그림 IV-36>은 아이 라이너를 강조, 눈썹 라인을 아이홀과 같은 형태로 표현, <그림 IV-37>은 아이라인과 속 눈썹을 과장 연출 표현, 눈썹 아이홀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IV-36>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Makeup style-Eye
Christian Dior

<그림 IV-37> Fem collections
vol12 04-05 FW Makeup
in london_House of jaz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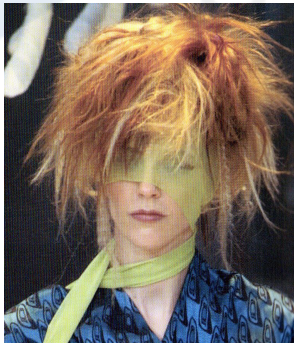
(3) 펑크(Punk)메이크업

펑크(punk)의 사전적 의미로는 '가치 없거나 하급의 것', '푹대기', '젊은 방랑자' 및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젊은이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암울해진 미래와 사회에 대한 반향으로 펑크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⁷⁸⁾. 펑크(Punk) 스타일의 특징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과 폭력적 이미지의 액세서리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유행한 아프로 스타일(Afro style)은 꼬불꼬불 하고 부시시한 흑인 특유의 머리를 특별한 장식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린 것이었다. 1970 - 1980년대 헤어스타일로는 비비 꼬

78) 정복자(2003). 「20세기 헤어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8.

아 세운 스파이크 헤어(Spike hair)와 곳곳이 세운 모히칸 스타일 및 과도하게 부풀린 스타일 그리고 머리를 괴상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갖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비대칭적으로 커트한 헤어스타일과 머리를 모아서 부채살 모양으로 젤이나 무스로 세운 폴규핀 스타일(Porcupine style)과 머리를 깎아서 그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니기도 한 스킨헤드(skin head)등이 있으며 앤드로지니어스 룩(Androgynous look)의 영향으로 짧은 소년과 같은 모발을 헤어로션이나 드라이로 손질해 울동감 있는 스타일로 표현 했으며 다양한 색깔의 염색을 많이 하고 부드러운 웨이브가 유행하였다.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므로써 그들의 근본적인 허무주의와 히스테리 및 폭력 등을 헤어스타일과 복식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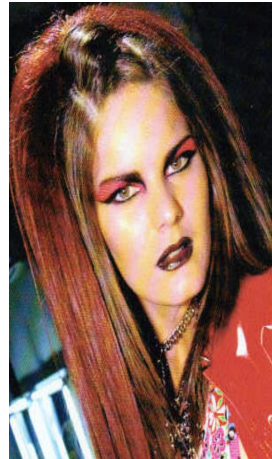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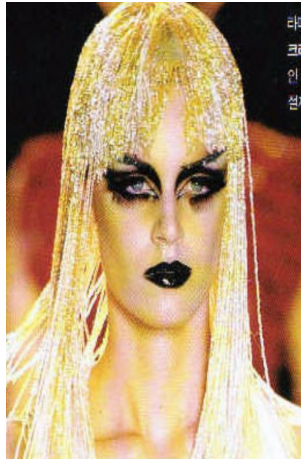
<그림 IV-38>은 헤어밴드에 아이라인선을 가려주고, 머리를 풀어헤친 모양, <그림 IV-39>는 검정 아이 새도우로 표현, 입술선 강조, 헤어 핑크 스타일로 표현, <그림 IV-40>은 아이라인을 강조한 새도우 사용, 입술화장, 눈썹 화장의 과장 표현 그리고 <그림 IV-41>은 눈썹의 각진 표현, 아이라인의 형태 강조, 입술선 및 헤어스타일을 강조하였다.



<그림 IV-38> Collection 02-03
FW Paris Milano



<그림IV-39> Christian Dior
Collection vol09 2005 SS



<그림 IV-40> Christian Dior <그림 IV-41> 03 SS London
03 SS London NewYork Milano Paris NewYork Milano
Paris

(4)레이스리스 메이크업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문화적 경계 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하려는 양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역사적으로 성립되어온 민족성을 해체하여 다국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레이스리스 이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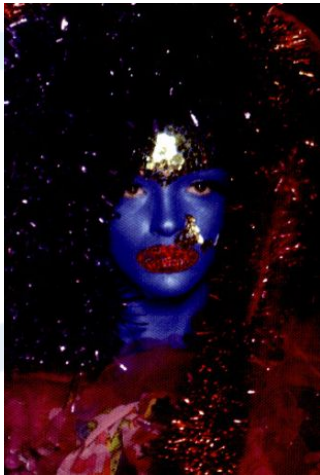
레이스리스와 에스닉 모두 민족적인 것을 나타내지만, 에스닉은 나타내려는 것이 명확한데 비해 레이스리스는 여러 민족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내려는 것이 모호하다. 레이스리스는 획일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 한 문화를 공존시킴으로써 지배적 가치가 붕괴된 혼돈의 세기말을 극복하고 인간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과 서양, 또는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이 반영된

79) 강호섭(1998.12), 'Raceless', Vogue(K), p.74

메이크업을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이라 정의하였다.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은 민족이 문화성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것으로, 타자의 임의적 상용 및 변형을 통한 역사성 그리고 관습적, 토속적 재료의 사용을 통한 창조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민족 문화를 소재로 하거나 흑인 문화를 소재로 삼은 메이크업으로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을 설명하였다. <그림 IV-42>는 피부표현 재해석 하여 표현, 아메리카의 원색적 칼라 입술과 새도우 표현,<그림 IV-43>는 인디언의 모습으로 아이 새도우로 눈썹을 표현하였다.



<그림IV-42> John Galliano
Collection vol100 2003 SS



<그림IV-43> von Furstenberg
Fem collections vol09 2004 SS

<표 IV-1> 해체주의 표현기법에 따른 메이크업의 특징

특 징	메이크업 분류	해체주의적 특성	표현기법의 특징
우 연 적 의 미	드리핑	불확정성 형식해체 유희성	· 피부 얼룩짐 · 부조화 · 미완성 · 부분적 선 강조 혹은 무시
	데칼코마니	불확정성	· 대칭적 요소 · 다양한 컬러 형태
퇴 폐 적 의 미	데카당스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 이색적인 컬러 도입 · 악마스런 문양 · 자극적인 장식 · 성적 노골화로 에로티 이미지 · 피부얼룩짐 · 잡티의 극대화 · 형태 축소 및 무시
	노테스테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구성	· 곤충이나 동물요소 이용 · 저속한 퇴폐적 이미지 · 깃털, 짐승의 부리, 식물성 색소 로 얼 굴, 신체 위장
	그로테스크	불확정성 탈구성	· 부조화, 부자연스러움 · 과장된 표현 · 애 매 모호함 · 해학적으로 표현
유 희 적 의 미	그래픽	불확정성 탈구성 탈중심	· 기하학적인 형태 이용 · 비인간성 표현 · 메이크업 안하는 곳에 그림
	콜라주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구성	· 이질적인 소재혼용 · 인조 속눈썹의 변형 · 유치하고 저속한 하위문화
	타투	차연 상호텍스트성	· 공격적 · 자극적 문양 · 그래픽적 요소 · 공간적 해석
양 성 적	앤드로지너스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 상반된 성의 요소 도입 · 여성의 내추럴 메이크업 · 남성의 메이크업 · 다른 성(성질) 도입

의미			· 혼성모방혼재 · 동서양의 혼재 · 목적이 다른 아이템 조합
민속적 의미	화이트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중심	· 일본 가부키메이크업과 로코코 시대의 메이크업 변형 · 실버톤 혼합한 분위기 · 비기독교적 토속적 의미 · 미래적 의미
	코울	차연 탈구성 탈중심	· 시간, 공간적 코울 해석 · 다양한 컬러의 코울 형태가 변형 · 이집트 시대 반영
	핑크	탈중심	· 파괴적 혐오스런 이미지 · 쇠사슬 이용 · 블랙만 사용한 메이크업
	레이스리스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성	· 소수 민족의 문화도입 · 흑인 문화를 소재 · 다양한 문화가 혼합으로 표현

2. 해체주의 형태와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기법

형태는 형으로 구성된 윤곽 및 지각되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갖는다. 형태에는 실제적인 형태를 뜻하는 구상(사실)적인 형태와 그와 반대되는 추상적, 기하학적 형태 및 파괴적 표현을 포함한 무 형태로 나눌 수 있다⁸⁰⁾.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특성에 따라 실제적인 형태가 지각되는 구상(사실)적인 형태와 일정한 사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추상적 문양으로 표현된 추상적 형태, 기하학적 문양이 표현된 기하학적 형태, 얼굴의 조형요소를 은폐하는 무 형태로 나누어 분류한다..

또한 메이크업의 표현 유형을 조형 요소 중 구성을 이루는 형식인 점, 선, 면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80) 변영희, 채금석(2004).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1), p. 69.

1) 점 형태

점은 형태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최소의 형식이다. 이러한 점은 선이나 면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하며, 주변공간과의 상관관계에서 상대적인 공간의 결핍으로 그 자체의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⁸¹⁾. 점은 크기와 명암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점을 줄지어 배치하면 울동감이 생겨나며 어떤 방향감이 암시되게 된다. 점은 크기나 형태 이외에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⁸²⁾.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에서는 점의 형식을 가진 여러 가지 소재들 중 특히 인조보석류를 조합하여 하나의 구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또 는 비대칭적인 수상적 문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자체로 얼굴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도 하며 눈물방울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2) 선 형태

선은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폭, 굵기가 다양하며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또한 선의 종류나 강약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진다. 사선은 방향성과 운동성을 가지며 직선은 예리함, 명확함, 엄격함 등이 느껴지고 구불거리는 곡선에서는 유연함, 생명감, 자유함, 불확실성 등의 감정이 느껴진다⁸³⁾.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라인 등의 표현에 선의 형식이 사용되며 블러셔(blusher)를 선적인 터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사선, 직선, 곡선 등 선의 형태는 종류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좌우되어 진다. 전형적인 메이크업의 형태에서는 얼굴의 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써 아름다운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⁸⁴⁾.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에서는 종이류, 인조보석류의 레이스 등의 소재로 눈썹의 모양을 표현하거나 깃털 등으로 속눈썹을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패브릭, 종이류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잘라 선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만들어 얼굴 곳곳에 붙여 장식적

81) 오근재 역(1996).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서울 : 미진사, p. 37.

82) 유정주(2003). 앞의 논문, p. 15.

83) 오근재 역(1996). 앞의 책, p. 139

84) 유정주(2003). 앞의 논문, p. 15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입체적인 곡선으로 표현한 예도 보인다.

3) 면 형태

면은 점의 확대나 선의 이동 등 무한한 형태와 넓이를 가질 수 있다. 면의 표정은 그것이 어떤 질료와 결속되어 있는가와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띄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드러움 이라든가 딱딱함 이라는 질감의 느낌은 바로 면의 표정과 연결된다⁸⁵⁾.

메이크업에서 면의 형식은 주로 아이섀도우(eye shadow), 치크(cheek), 립(lip) 메이크업에 적용되는데, 글리터를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아이 섀도우의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패브릭, 종이류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추상, 기하학적 문양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베일이나 마스크 형태로 얼굴의 부분을 가리거나 눈, 입, 등을 막아 버리거나 얼굴 전체를 은폐하는 형태로도 표현되었다.

4) 구상적 형태

구상적 형태는 인조보석류, 종이류 등의 소재를 얼굴을 구성하는 부분들 즉, 눈썹, 속눈썹, 입술 등에 붙여 본래의 모양을 과장, 장식하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패브릭 등의 소재로 베일이나 마스크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종이류 등의 소재로 꽃, 나비모양의 오브제를 만들어 부착하거나 펠(fur)등을 사용하여 동물적인 형상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자유롭게 잘라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패브릭이나 종이류의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작은 인조 보석류로 형태를 만들어 입술이나 얼굴에 붙이는 방법으로도 표현되었다.

5) 추상적 형태

추상적인 곡선을 표현한 문양이나 타투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부착시킨 메이크업이 많았으며 원시 부족의 메이크업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인도의 전통 메이크업 장식인 빈디를 재현하거나 뿌리고 흘리고 번지는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패브릭, 종이류의 소재를 잘라서 문양을 만들어 붙이거나, 패브릭 소재로 만든

85) 오근재 역(1996). 앞의 책, p. 140.

오브제 사용, 또한 인조 보석류를 붙이거나 글리터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 낸다.

6) 기하학적 형태

원, 사각형, 삼각형, 별, 십자가, 하트 또는 직선의 기하학적 문양을 다양한 크기로 얼굴의 곳곳에 붙여 표현하는데, 특히 별, 하트 등의 문양은 17세기의 뷰티 스팟을 유희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소재는 기하학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종이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속류와 글리터로도 표현되었다.

7) 무 형태

얼굴의 형태나 윤곽 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은페시킴으로써 마치 형태가 없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패브릭을 사용하여 전체를 감싸거나 금속, 종이 등으로 눈, 입 등 특정 부위만 남겨놓고 얼굴 윤곽을 감싸거나 또는 눈, 입 등을 막아 버리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 IV- 2> 해체주의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 특성

구성	표현 형태	소재	부위
점 형태	1.구상적 형태 : 눈썹, 입술 등을 과장, 입체적으로 표현 2.추상적 문양 구성 3.전체적으로 홀뿌림 4.얼굴의 점을 표현	인 조 보 석 류 종이류 금속류	눈썹 입술 뺨
선 형태	1.구상적 형태 : 눈썹, 속눈썹 등의 왜곡된 표현 2.추상적 곡선 3.기하학적 직선 4.흘러내리는 눈물 표현	종이류 패브릭 펠 (fur)	눈썹 속눈썹 뺨
면 형태	1.아이새도우 효과 연출 2.베일이나 마스크 형태로 부분적 커버 3.얼굴 형태를 전체적으로 커버	패브릭 종이류 인 조 보 석류	눈 뺨 얼 굴 전 체
구상적 형태	1. 눈썹, 속눈썹, 입술 형태 2. 베일이나 마스크 형태 3. 동물, 꽃, 나비 등 자연물 형태	패브릭 종이류 인 조 보 석류	눈 눈썹 뺨
추상적 형태	1. 추상적 문양 부착 2. 에스닉한 전통 메이크업 또는 이미지 연출	패브릭 인 조 보 석류 종이류	눈 이마 얼 굴 전 체
기하학 형태	1. 원, 사각형, 삼각형, 별, 십자가, 하트 등의 문양	종이류 금속류 인 조 보 석류	눈 입 이마
무 형태	1. 얼굴의 형태, 윤곽을 은폐	금속류 패브릭 종이류	얼 굴 전 체

V.메이크업을 활용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의 메이크업의 분석

해체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세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불확정성은 형식을 해체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조화와 퍼포먼스를 통한 우연적인 메이크업 또는 완성되지 않은 메이크업인 미완성으로 그 표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탈 중심성은 비서구문화권의 전통 메이크업, 비서구적 인종의 특성을 살린 비서구와 펑크적인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하위문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상호텍스트성은 복고적인 것과 현대적인 메이크업 또는 메이크업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소품을 사용하여 회화적인 것과 메이크업의 장르간의 해체를 통해 미적 경계를 파괴하고 병행하여 인용한 혼성모방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다원적이고 혼성적이며 독자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한 복잡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불확정성 형식의 해체

불확정성이란 형식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으로 질서와 기능, 객관적인 미의 개념 등을 무시한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형식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왔다. 특히 조화, 대비, 비례, 대칭, 균형 그리고 리듬 등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중시하며 이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면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에게 공통된 미적 추구로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정성은 이러한 형식의 원리를 무시한 개념으로 종전에 메이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일관된 표현세계를 무한대의 표현세계로 바꾸어 놓았다. 불확정성의 특성은 메이크업에서 부조화와 미완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1)부조화

부조화는 기존의 미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무시로서 조화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형식에 대한 디자인 원리를 무시한 표현으

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해체주의 영향에 의해 그 원리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미나 비례를 무시한 추와 왜곡으로, 미리 설정된 의미의 명확성을 모호성으로, 과거에는 비정상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해체주의는 철학적, 창조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간성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이 메이크업에도 나타나 일반적인 메이크업에 대한 역할과 목적, 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고 극단적이며 진위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깨끗하고 얼룩 없는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라는 메이크업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얼룩지고 잡티를 극대화 시켜 표현하는가 하며 부분적인 메이크업에서도 선을 강조하거나 축소시켜 형태를 무시하고 빼놓아진 입술 선을 보여 주는 등 일반적인 미의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2)미완성

메이크업에서 미완성이란 의도적으로 미숙한 형태나 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중의 메이크업으로 특히 퍼포먼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술 선을 그리고 그 안에 면을 채우는 과정이 아닌, 면을 비워둔다거나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메이크업이 아닌 우연적이고 무계획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예측 불허한 메이크업을 통해서 미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미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 시켰다고 볼 수 있다.

2.탈 중심성

해체주의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체제 속에서 주변화된 체제와 그들의 조간을 주목하는 탈 중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엘리트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의시기에 대한 절대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 되어 왔던 하위문화, 여성성, 비서구 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일관적이 미의식이 파괴됨에 따라서 다양한 미의식에 대한 새로움이 창조되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정적이고 무시되었던 소수의 문화적인 특징들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1)비 서구

현대인들은 삶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비스럽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비서구적이고 다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비기독교적인 토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획일적인 미의식을 부정하여 다양한 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메이크업에서 비서구라 함은 고대 화장법이나 인종적인 특징을 가지는 메이크업을 말하는데 몽고리안의 추위 보이는 듯한 볼의 발그레한 화장 입술을 극적으로 축소시키고 빨갭게 표현하거나 아이라인에서 메바리선⁸⁶⁾과 같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연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표현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극을 연상시키는 눈 주변부로부터 피부를 붉게 표현 하는 것, 인도 여인들의 이마의 점 등 서구 중심적이 아닌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요소의 차용을 통해 새롭게 해석함으로서 강한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독립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준다.

2) 하위문화

하위문화는 한사회의 소수 또는 특수한 부분으로 특이하게 나타나는 생활방식을 가리킨다. 하위문화란 2차 대전 이후 영국 등지에서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개념으로써 이들의 하위문화란 노동계급 청년 하위문화이다.

우리나라엔 상위문화보다 하위에 있는 문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위문화란 지배문화와는 상이한 신념 및 가치 체계,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도시집중현상은 인구의 이질성, 유동성을 가져왔고 복잡한 사회구조속의 구성원들은 더욱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면서 무관심을 표명하기도 하고 이런 무관심속에서 관심을 끌기위한 이탈 행동양상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하위문화 집단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메이크업에서 하위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히피의 특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펑크집단의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메이크업의 영감을 얻은 작품과 흑인문화의 특성을 나타내어주는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격하고 파괴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펑크는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미의식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깔끔하지 못한

86) 눈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목을 썬어 진하세 그리는 가부키 분장

모습으로 나타난 다. 블랙만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죽음, 절망, 공포 그리고 공허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약간은 부드러워졌다.

하위문화에서의 메이크업은 그들의 저항성과 반사회적인 면을 강하게 대변하였는데 이러한 과격하고 거친 표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어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3. 상호텍스트성-혼성 모방

해체주의는 사회구조적으로 계층 간의 위계질서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어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 된다⁸⁷⁾. 또한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 되면서 소수 중성의 모순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면서 인간은 다원적인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호텍스트형이다. 하나의 작품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작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해체주의는 의도적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장르 개념을 와해시킨다.

따라서 상호 텍스트성이 패러디와 같이 어떤 의도 속에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도도 소멸된 형태로 그 속에서 모티브로 잠재해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메이크업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텍스트들의 결합, 즉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등 목적이 다른 아 아이템의 이질적인 것들이 잡다하게 결합되어 자유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적인 메이크업은 스타일이나 테크닉, 모티브 등을 의식적으로 빌려온 이미지이며 이는 다소 연관이 없는 조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동기도 감각도 없는 의미창출이 배제된 허무주의적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뚜렷한 분류를 찾아낼 수 없는 혼란스러운 특성으로 정확한 형태를 가지지 않은 불분명한 영역 등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87) 윤 난지(1993), “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월간 미술세계』, p.64

VI. 결론 및 제언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원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탈 획일화, 탈 중심화,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그 시대를 풍미한 예술양식과 결합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고 개성있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이 다양하고 개성있는 스타일이 선보여 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메이크업은 세련되고 화려하면서 깊이 있는 색채의사용으로 디자이너의 개성까지도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완전성, 형태 파괴, 기형, 왜곡 등 충격적이고 실험적인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과 '기능의 비 관련성으로 각 요소간의 극도의 모순적 경향을 보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해체주의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의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나타내고,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의 의미 하며, 불확정성은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탈현상은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여 형태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탈구성과 탈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탈구성은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고 일정한 규칙이나 물이 없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의미하고, 탈중심은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며 소외되었던 비주류문화를 수용함을 의미한다.

2.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은 우연적 의미, 퇴폐적 의미, 유희적 의미, 양성적 의미, 민족적 의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과 접목시킨 결과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우연적 의미는 현대 추상미술에서 작가들이 무의식의 작용에 의한 순수한 표현으로서 우연을 받아들이면서 본격화 되었다. 무의식에 위한 우연적인 표현기법은 다수의 작가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이용되어 왔는데, 특히 미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체주의의 탈 구조현상에 접목시켰다. 이를 메이크업에 응용한 것이 드리핑(Dripping)메이크업, 데칼코마니(Decalcomanie)메이크업이다.

둘째, 퇴폐적 의미는 병적인 분위기의 색상이나 혐오스런 문양의 타투(Tattoo) 또는 성을 자극시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데카당스(Decadance) 메이크업과 곤충의 더듬이나 동물의 깃털 등을 사용하여 퇴폐적이고 혐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노트스테(Notester) 메이크업, 혐악한 분위기로 부자연스럽고 애매모호하며 일정한 규칙이 없는 그로테스크(Grotesque)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유희적 의미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선과 면을 응용한 그래픽(Graphic) 메이크업 과 이질적 소재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한 콜라주(Collage) 메이크업 그리고 도형적인 요소를 조합한 타투(Tattoo)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양성적 의미는 성(Gender)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테리다의 상호 텍스트성에 기인하여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됨으로써 차별화된 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메이크업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민족적 의미는 메이크업의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테리다의 차연과 연관되어진다. 민족적 의미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하여 피부를 하얗게 표현한 화이트(White) 메이크업, 과거의 코울을 사용하여 형해와 색상을 변형시킨 코울(Kohl) 메이크업,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과 블랙만 사용한 형태인 펑크(Punk)메이크업 그리고 비주류문화의 전통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획일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를 표현한 레이스리스(Raceless)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3. 해체주의 형태와 구성요소에 따른 표현기법은 구성요소와 종류에 따른 표현의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트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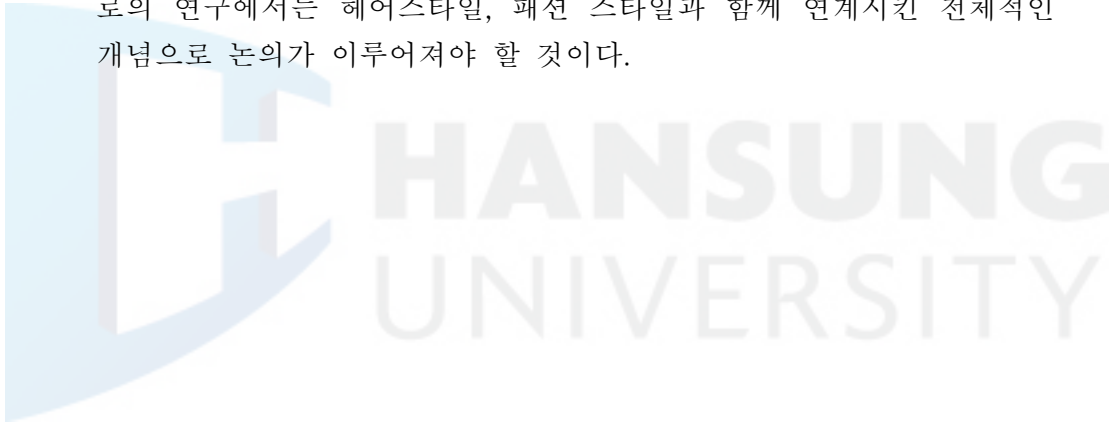
형태 구성요소에 따른 점 형태, 선 형태와 면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선은 얼굴전체에 자유롭게 표현되어 기하학적 모양의 그래픽적인 선들이 많이 보였고, 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팔 심지어 손바닥 에도 넓은 면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여 메이크업의 기존 구성방식의 틀을 벗어났다. 형태의 종류에 따라 구상적 형태, 추상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 및 무 형태로 이루고 있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일반 메이크업에 비해 파격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력을 추구하고 한 가지 특성만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기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응용되고 변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측면과 해체주의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메이크업이 조형예술로 부각됨에 따라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과 조형요소별 표현기법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부족한 현 메이크업 업계에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메이크업이 시도될 것이며, 특히 다양화 . 개성화 시대와 더불어 열린 세계, 열린사회를 지향함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해체주의적 표현기법은 앞으로도 새로운 화장품의 개발과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해체주의의 근원과 본질을 인식하고 메이크업의 표현기법과 테크닉의 독창성을 위해서는 작품표현의 확대를 위한 응용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과 함께 연계시킨 전체적인 개념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영호(1998), 『시각디자인의 구성원리』, 태학사
강경화(2000),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김재은 역(2989).) 『예술심리학』, 이화여대 출판부.
김형호(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박숙현(2004). 패션디자인론, 예학사
양진희 외5인(2005), 『메이크업 디자인』, 광문각
오근재(1996).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이광래(1993).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자유문화사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자유문화사.
정삼호(1996),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진종언. 김형률(1999), 『화장품과학』, 도서출판 정담
채금석 역(1996), 『의복과 성』, 경춘사
패션신문 사전편찬팀(2000), 『신 패션용어 사전』, 주간 디자인 신문
한명숙(2001). 『마피아주 예술』. 청구문화사
황정원(1995). 『화장품학』. 현문사.

2. 논문

- 김경아(199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루현 외(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크 수용에 관한 연구”, 「음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김명섭(1998).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김수진(1998).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1885), 「이집트 장식 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현(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1997), 「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호
-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1998), 「현대 건축형태 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선옥(1998),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 슈 우에무라와 일라 나 하카비의 메이크업 아트를 중심으로 -」,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 박연주(1995), 「매니쉬 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영희, 채금석(2004).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1),
- 선헤미(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타투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남철. 박숙현(2007), “타투(Tattoo)와 문신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교”, 「의류학회지」, 31(1)
- 송민정(1991).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복(2005), 「 2창의력 중심의 미술교육 연구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난지(1993),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월간 미술세계」
- 이명희(2004), 「포스트 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정(2003), “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의 미학적 연구”, 「한국인체 예술학회지」. 제4권 2호.
- 이은임(2000).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순(2003), 「한국여성의 Make-Up조형성에 관한 연구-얼굴형에 적합한 화장색조와 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광숙(1998),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숙(1998),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복자(2003). 「20세기 헤어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23

조말희(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미영(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별(1996),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지(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한성철(1996),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3. 정기간행물

Vogue(k). 1990.1.

강호섭(1998.12), “Raceless”, Vogue(K)

동아일보, 1995. 6.15

송혜선(1997.1), “White Magic”, Vogue(K)

한국일보, "사회가 변한다", 1996.7.19

BEUTY COLLECTION. 동아 TV. vol.1-2

COLLECTION.동아 TV. vol.4-12

fem collection. modanews Co.,Ltd. vol.7-14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deconstruction make-up

Lee, Mi-ja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techniques in deconstruction and make-up by integrating J. Derrida's deconstruction with make-up.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J. Derrida's deconstruction, and positively analyzes the properties of deconstruction make-up. It focuses particularly on the properties of deconstruction make-up after 2000 and analyzes various make-up styles through the collections from 2000 to 2008.

This study combines the 4 characteristics of J. Derrida's deconstruction; difference, intertextuality, intermeaning of meanings, breakaway from phenomenon, with properties of make-up image; accident, decadence, amusement, ethnicity, androgynou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expressed as Dripping make-up and decalcomanie make-up in accident make-up. Second, decadence is to make people feel aversion by colors of diseased atmosphere or a tattoo make-up of loathsome patterns or stimulating a sexual desire. It has been expressed as Decadence make-up, Notester make-up expressed by antenna of insects or fur of animals, and Grotesque make-up expressed in constrained ways.

Third, amusement has been expressed as Graphic make-up, Collage make-up and Tattoo make-up. Graphic make-up is a method applying a simple but geometrical lines and surface. Collage make-up uses collage techniques in heterogeneous materials and Tattoo make-up combines the elements of figures.

Fourth, androgynous breaks down the boundary of gender. It has been expressed as Androgynous make-up which shows both gender of male and female and presents distinguished images of gender.

Finally, ethnicity exists in the connection of make-ups in the past and the future, and it has links in J. Derrida's difference. It is expressed as White make-up, Kohl make-up, Punk make-up, and Raceless make-up. White make-up uses white color to make a skin white. Kohl make-up changes the frame and colors by using the kohl from the past. Punk make-up only uses black color to express destructiveness and abomination. Anti-mainstream is a motive of Raceless make-up and expresses various kinds of cultures by emerging from a standardization.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deconstruction make-up is artistic and creative in all its aspects. Lines in the face are geometric and graphic. Side shown in not only a face but also a neck, arms and even palms is expressed as wide enough to be emerged from existing constitution of make-up. Deconstruction make-up is more creative and unconventional compared to other common make-up styles and expresses more freely. It also does not keep one kind of characteristic. One can interpret it in various ways since it can be varied in techniques and images and has positive links in the aspects of deconstruction. Therefore, various experiments in make-up need to be attempted and new products need to be developed. Designers also need to work on creating a new idea of make-up.